

해외 미디어 동향

2026 2nd WORLD MEDIA TRENDS

생성형 AI 시대,
세계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대응하는가?



제2호 해외 미디어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속한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는 허위정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과거 허위정보 대응이 개별 기사나 게시물의 진위를 검증하는 언론 활동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언론, 플랫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 전체(Whole-of-Society)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허위정보 생산과 확산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대규모화되면서, 정보 회복력(Information Resilience)과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팩트체크 콘퍼런스인 GlobalFact 2026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국제 콘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각국이 축적해 온 정책적 경험과 국제 협력, 기술 발전, 그리고 수년간 이어져 온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변화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실제 대응 사례와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담론, 그리고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 내부에서 축적된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하나의 주제를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기획하였다.

첫 번째는 GlobalFact 2026 참관기이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GlobalFact 2026은 생성형 AI 시대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가 직면한 핵심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 콘퍼런스에서는 정보 무결성, 사회 전체 대응, 정보 회복력, 플랫폼 정책 변화,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 조작 대응, 국제 협력, 팩트체크 기관의 지속가능성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허위정보를 더 이상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참관기는 주요 세션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는 국제 팩트체크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다. 국제 콘퍼런스는 특정 시점의 주요 의제와 논의를 확인하는 데에는 효과적이거나,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축적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팩트체크 분야 전문가가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커뮤니티에 약 4년 5개월간 축적된 이메일 아카이브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협업과 기술 공유, 공동 대응, 생성형 AI 논의, 플랫폼 정책 변화, 재정 위기, 국제 협력 구조의 변화를 장기적인 시계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GlobalFact 2026에서 확인한 주요 의제가 일회성 행사에서 제기된 담론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구조적 변화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가 허위정보 대응을 넘어 정보 회복력과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해 온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여 국제 팩트체크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 집중 취재다. GlobalFact 2026 참가 준비 과정에서 라트비아 국제문제연구소(Latv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발간한 「발트 3국과 대만의 하이브리드 위협: 공통점, 위험 요인 그리고 소규모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시사점(Commonalities, Risks and Lessons for Small Democracies: Hybrid Threats in Baltics and Taiwan)」¹⁾을 검토한 결과, 콘퍼런스 개최지인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과 대만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허위정보와 인지전(Cognitive Warfare), 사이버 공격 등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플랫폼,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 회복력 구축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정보 회복력 개념이 실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만을 직접 취재하고,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Taiwan FactCheck Center, TFC), 코팩츠(Cofacts), 마이고펜(MyGoPen) 등 주요 팩트체크 관련 기관의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생성형 AI 활용 사례, 플랫폼 협력 모델 등을 분석하였다. 대만 사례는 특정 국가의 정책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GlobalFact 2026에서 논의된 국제적 의제를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https://www.liia.lv/en/publications/hybrid-threats-in-baltics-and-taiwan-commonalities-risks-and-lessons-for-small-democracies-954>

이번 해외 미디어 동향 보고서는 GlobalFact 2026 참관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생성형 AI 시대 허위정보 대응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의 장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어 대만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정보 회복력과 사회 전체 대응 개념이 실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국제 컨퍼런스 현장,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의 장기 변화, 국가 차원의 실천 사례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함으로써 생성형 AI 시대 정보 무결성과 정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번 보고서가 해외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상호 교차 검증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PART I

GlobalFact 2026 참관기

글로벌 팩트체킹의 현재와 미래

나인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차장

01 GlobalFact 2026

02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보 회복력

- 진실을 둘러싼 전쟁의 최전선
- GlobalFact 2026의 시작: 침묵으로 기억한 한 명의 팩트체커
- 리투아니아가 말하는 사회 전체의 회복력
- 지속가능한 팩트체킹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03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전과 언론 탄압

- 민주주의는 정보전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러시아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 언론이 공격 대상이 될 때

04 AI 시대 팩트체킹의 전환과 지속가능성

- 팩트체킹의 인프라화: 글로벌 공동 저장소 구축
- AI의 위협: 답변 경제와 혼란의 확산
- Global Fact-Checking Awards가 보여준 세계 팩트체킹의 새로운 기준

05 GlobalFact 2026이 던지는 의미

06 에필로그

PART II

'단체 e메일함'으로 본 글로벌 팩트체킹 생태계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 · 미디어학 박사

01 들어가며 - 왜 e메일함인가

02 33분 만의 답장 —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의 e메일
- 하나의 영상에 5개국이 달려들다
- 33분 만의 답장
- 설문에서 보고서, 다시 대중용 온라인 퀴즈로
-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즉석 공조
- 재난 한가운데서 온 e메일
- 정치를 넘어 생사의 문제로

03 팩트체크 생태계를 뒤흔든 네 가지 변화(2022~2026)

- 변화 ① 공격받는 검증자 — 팩트체커는 이제 '표적'이다
- 한 팩트체커의 죽음
- '가짜 팩트체킹'이라는 신종 무기
- 선거를 노리는 공작, 국경을 넘는 추적
- 급습, 폭행, 해킹
- 민주주의 국가발 위협
- 변화 ② 플랫폼 시대의 종언 — 9년 협력의 끝
- 변화 ③ AI의 도래 —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적이자 도구
- 변화 ④ 76%가 흔들린다 — 재정 위기와 지속가능성

04 그럼에도 생태계는 왜 유지되는가

05 서울의 영광, 그 후 — 한국이 사라진 자리

06 맺으며 — 축소 속의 지속

PART III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 집중 취재

이상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팀장

01 위기가 일깨운 방어선, 가짜뉴스 최전선 대만

02 각기 다른 무기로 연대하는 대만 팩트체크 삼총사

-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중심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인프라 코팩츠
- 생활 밀착형 검증 서비스 마이고펜

03 가짜뉴스 잡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실험

04 사후 수습을 넘어선 예방, 시민 모두가 디지털 탐정

05 벼랑 끝 자금난과 양극화, 대만이 마주한 한계

06 한국 생태계에 던지는 시사점

부록

1.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방문 인터뷰
2. 코팩츠 방문 인터뷰

PART I

GlobalFact 2026 참관기

글로벌 팩트체킹의 현재와 미래

나인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차장

생성형 AI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플랫폼 정책 변화는 국제 팩트체킹 생태계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다. 팩트체킹은 더 이상 개별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언론 활동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보 무결성을 지키는 사회적 인프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최된 GlobalFact 2026은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와 미래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 본 보고서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주요 세션과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고, 우리 언론계가 참고할 만한 국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GlobalFact 2026

2026년 6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사흘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GlobalFact 2026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팩트체킹 콘퍼런스다. IFCN은 미국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 산하의 국제기구로, 2015년 설립 이후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70여 개 팩트체킹 기관과 협력하며 교육, 네트워킹, 국제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증진과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마련, 연구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1] GlobalFact 2026



* 출처: Delfi

올해 행사는 80여 개국에서 300여 명의 팩트체커와 언론인, 연구자, 정부 관계자, 기술 기업과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프로그램은 공통 세션 8개와 분과 세션 32개로 구성됐으며, 분과 세션은 동일 시간대에 5~6개씩 병행 운영되어 참가자는 한 시간대에 하나의 세션만 선택해 참석할 수 있었다.

이번 GlobalFact 2026은 생성형 AI, 정보 무결성, 러시아의 정보전 대응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팩트체킹을 기사 검증이 아닌 민주주의와 정보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02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보 회복력

정보전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구축해야 한다

진실을 둘러싼 전쟁의 최전선

1993년 구소련군이 리투아니아에서 최종 철수할 때 한 러시아 사령관은 “10~15년 후,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²⁾ 그리고 이 섬뜩한 경고는 현재 발트 3국이 직면한 현실이 되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32km 떨어진 빌뉴스에서 개막한 GlobalFact 2026은 단순한 저널리즘 행사가 아니었다. 탱크와 미사일만큼이나 치명적인 ‘하이브리드 전쟁’과 ‘허위정보’의 최전선에서 전 세계 팩트체커가 진실의 방어진을 구축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의 재정 상황은 2025년 초부터 악화되고 있다.³⁾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⁴⁾의 조직과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같은 해 메타(Meta)가 IFCN 회원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미국 내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도 했

2) Louis Jacobson, <The Baltics turn precarious geography into a focus on defense and resilience>, Poynter Institute, 2026. 6.16,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6/how-lithuania-latvia-and-estonia-prepare-for-russia/>

3) IFCN, <State of The Fact-Checkers Report 2025>

4) 미국 정부의 대외원조 전담 기관.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 자유, 민주주의, 시민사회 및 팩트체킹 사업 등을 지원함. 미국 정부의 조직 개편과 예산 삭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다수 사업이 폐지되거나 국무부로 이관됨

다. 팩트체커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올해 행사에 빅테크 기업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매년 메타와 구글(Google)이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올해는 틱톡(TikTok) 1개 사에 불과했다.

IFCN 디렉터 앤지 드롭닉 홀란(Angie Drobic Holan)은 개회사에서 “정치적 환경이 변하자 지원도 그 흐름을 따라 바뀌었다”라며,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⁵⁾

GlobalFact 2026의 시작: 침묵으로 기억한 한 명의 팩트체커

GlobalFact 2026의 첫 순서는 환영사가 아니었다. 빌뉴스 행사장에 모인 전 세계 팩트체커와 언론인들은 먼저 잠시 묵념 시간을 가졌다. 함께 추모한 사람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 팩트체커 알라 살만(Alaa Salman)⁶⁾이었다.

레바논의 팩트체커 알라 살만은 가족과 함께 머물던 집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생을 마감했다.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는 살만을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동료로 기억했다. 행사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참가자들은 분쟁과 폭력 속에서도 사실을 기록하고 검증해 온 언론인과 팩트체커를 함께 추모했다.

이 장면은 이번 GlobalFact 2026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콘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플랫폼 정책,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 모든 논의의 출발점에는 사실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공적 책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팩트체킹은 단순히 온라인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기술적 활동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행사 첫 순간부터 모든 참가자가 함께 확인한 것이다.

첫 번째 기조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의문이 하나 생겼다. 국제 팩트체크 콘퍼런스에서 왜 첫 발표자가 언론인이 아니라 국방 관계자일까. 그러나 발표가 끝났을 때는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리투아니아에서 허위정보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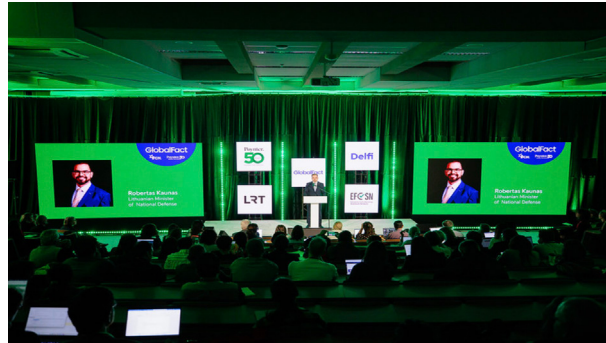
로베르타스 카우나스(Robertas Kaunas)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허위정보를 언론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로베르타스 장관은 정보전의 목적은 단순히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신뢰하

5) The political wind shifted, and their support shifted with it. To the technology platforms not in this room today, rejoin us in the work of making high-quality, accurate information accessible to everyone.

6) <https://gwaramedia.com/en/israeli-airstrike-kills-lebanese-fact-checker-alaa-salman-international-fact-checking-network-reports/>

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⁷⁾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독립적인 언론, 책임 있는 플랫폼,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인지 회복력(Cognitive Resilience)을 구축해야 하며, ‘언론은 방공 시스템만큼 중요한 민주주의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정보 공간을 방어할 수 없으며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림 2] 연설하는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국방부 장관



* 출처: Delfi 제공

리투아니아가 말하는 사회 전체의 회복력

허위 정보와의 싸움은 사실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만드는 일

GlobalFact 2026의 첫 번째 기조 세션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허위 정보를 바라보던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허위 정보를 하나의 기사나 게시물의 진위를 가리는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비드만타스 베르비카스(Vidmantas Verbickas) 리투아니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의 정보 조작이 선거와 경제, 역사 인식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드만타스 차관은 허위정보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인 만큼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정부와 언론, 팩트체커,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은 유럽 디지털 미디어 옵서버토리(European

7) 군사력이나 물리적 공격보다 정보, 심리, 여론 조작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인식·판단·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정보전의 한 형태. 허위 정보, 선전, 심리전, 생성형 AI,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포함함

Digital Media Observatory, EDMO)⁸⁾ 등 공동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어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3] 연설하는 비드만타스 베르비카스 외교부 차관



* 출처: Delfi

팩트체킹의 역할이 더 이상 ‘거짓을 바로잡는 언론 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허위정보는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지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역시 개별 기사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지 회복력(Cognitive Resilience)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AI, 프리벙킹(pre-bunking)⁹⁾, 정보 무결성, 국제 협력 등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팩트체킹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번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허위정보를 더 이상 언론이 개별 기사나 게시물의 진위를 가려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인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정보전을 경험해 온 국가로, 허위정보를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과 사회적 회복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허위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와 정부, 언론, 민주주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 8) 유럽연합이 설립한 허위정보 대응 협력 플랫폼. 유럽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허위정보를 공동 분석하고 정보 공유,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 9) 허위정보가 확산된 이후 이를 바로잡는 ‘디벙킹(Debunking)’과 달리, 허위정보가 퍼지기 전에 예상되는 조작 기법과 허위 서사를 미리 알려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와 정보 판별 능력을 높이는 사전 예방적 대응 전략

이러한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큼이나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4] 사회 전체의 회복력 세션



* 출처: Delfi

사회를 맡은 리투아니아 언론사 델피(Delfi)의 아이스테 메이두테(Aistė Meidutė)는 “허위정보는 국경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의 경계도 존중하지 않는다(Disinformation does not respect country boundaries. It does not respect institutional boundaries either)”는 말로 시작했다. 허위정보는 정부와 언론, 학교, 시민사회, 플랫폼을 동시에 겨냥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언론과 팩트체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플랫폼은 책임 있는 정보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전체(Whole-of-Society)’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의 이에바 가야우스카이테(Ieva Gajauskaitė)는 현대 정보전의 본질을 설명하며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다. 한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필요는 없으며, 오늘날 적은 군사력보다 ‘국민의 인식’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한 국가를 인지적으로 점령할 수 있고, 국민이 정부와 언론, 민주주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허위정보의 목적이다. 또한, 국민의 ‘싸울 의지(Will to Fight)’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시민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참여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와 참여가 곧 국가의 방어력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리투아니아 대표부의 마리우스 바슈체가(Marius Vaščeга)는 러시아의 대규모 정보 조작 사례인 ‘도플갱어(Doppelgänger)’ 작전¹⁰⁾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백 개의 가짜 언론 사이트와 SNS 계정, 여러 언어를 활용하는 정보 공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네트워크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To beat the network, you need the network)”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EDMO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허위정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분석과 다국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구조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은 개별 국가의 역량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 시민단체 시민 회복력 이니셔티브(Civic Resilience Initiative)¹¹⁾의 아우구스티나 자무슈케비추테(Augustina Zamuškevičiūtė)는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간 협력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언론, 해외 NGO 등과의 협력 경험을 소개하며,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상설 협력체계가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팩트체크 기관 자슈토 네(Zašto ne)¹²⁾의 마리아 초시치(Marija Ćosić)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의 조건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리아 초시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민사회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식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되어야만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협력과 독립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과 팩트체커는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와의 협력이 언론과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10) 러시아가 주요 언론사와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복제한 뒤 허위 기사를 게시하고, SNS와 봇 계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정보 조작 작전. 이용자가 이를 실제 언론 보도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허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수법이며, 2022년 이후 유럽연합(EU)이 가장 중대한 러시아 정보공작 사례 중 하나로 대응하고 있음

11) 리투아니아 비영리 시민단체. 허위정보와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교육·국제협력 사업 수행. 정부, 언론, 학계, 시민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12) 2001년 설립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비영리 시민단체. 팩트체크 플랫폼 라스크린카바네(Raskrinkavanje.ba)와 정치인 발언 검증 서비스 이스토미예르(Istinomjer) 등을 운영하며 허위정보 대응과 정부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IFCN 인증기관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FIMI)

이번 GlobalFact 2026에서는 FIMI(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FIMI는 기존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보다 한 단계 확장된 개념으로, 국가 또는 국가와 연계된 행위자가 정치·외교·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정보 조작과 영향력 공작을 의미한다. 단순히 거짓 정보 유포를 넘어 여론 조작, 사회 갈등 조성, 선거 개입, AI 기반 콘텐츠 생산, 사이버 공격, 친정부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한 복합적인 정보전을 포괄한다.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 프라바다 네트워크, 탐사보도 협업,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 조작 사례는 모두 이러한 FIMI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됐다. 이는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가 허위정보를 개별 기사의 진위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정보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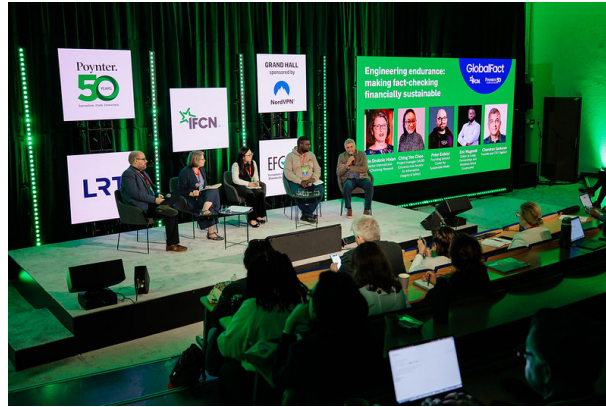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팩트체킹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기부금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플랫폼의 자금 삭감이라는 잇따른 타격으로 팩트체크 단체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줄어드는 자선 단체의 지원금을 두고 경쟁하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세션을 진행한 IFCN의 디렉터 앤지 홀란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자선 단체도 더 이상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을 계속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 관계자로부터 “전 세계 팩트체크 생태계를 모두 후원할 만큼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기부금 중심 모델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림 5] 지속가능한 재정 세션



* 출처: Delfi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위한 센터(Center for Sustainable Media)¹³⁾의 설립자인 피터 에르델리(Peter Erdelyi)는 “허위정보 대응에 대한 지형이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 및 자선 재단의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의 합의가 크게 흔들렸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국가가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을 지키는 작업을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검열(censorship)’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팩트체크 기관이 오랫동안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재(Public Good)로 인식해 왔지만,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자선 재단과 빅테크 플랫폼이 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나 이제는 그 구조가 무너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피터 에르델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있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Consumer-driven) 사고방식에서의 전환을 강조했다. 팩트체크 기관이 단순히 기사만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를 대상으로 허위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약회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제품 관련 허위정보 대응 가이드를 제작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에르델리는 앞으로 팩트체크 기관의 핵심 자산은 기사 자체보다 ‘신뢰를 제공하는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피터 에르델리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팩트체크 기관 가운데 순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2~3곳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현재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관들은 이미 기업 대상(B2B)

13) 2023년 설립된 헝가리의 미디어 전문 싱크탱크 및 컨설팅 기관. 독립 언론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모델 개발, 미디어 펀딩, 정책 연구 및 컨설팅 수행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기술 자문, 연구용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사례도 소개됐다. 오세아니아-아시아 지역 정보 무결성 및 안전 협력기구(Oceania-Asia Society for Information Integrity & Safety, OASIIS)¹⁴⁾의 프로젝트 매니저 칭 이 추(Ching Yee Choo)는 팩트체킹을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 언센서드(Africa Uncensored)¹⁵⁾의 에릭 무겐디(Eric Mugendi)는 아프리카에서는 해외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 사업과 조사 프로젝트, 언론 협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가팩트(Gigafact)¹⁶⁾의 찬드란 산카란(Chandran Sankaran)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검증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기업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과 조직 규모는 다르지만 모든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단일 후원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팩트체킹의 지속가능성은 저널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과 경영 전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기부금과 플랫폼 지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신뢰(Trust)’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번 GlobalFact 2026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향후 팩트체크 기관이 공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평가된다.

14) 2026년 출범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정보 무결성 협력 기구. 팩트체크 기관과 언론인, 연구자, 교육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허위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안전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15)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독립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탐사보도와 팩트체킹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부패와 권력 남용, 허위정보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디지털 뉴스를

16) 미국의 비영리 팩트체킹 지원 기관. 지역 언론사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팩트 브리프 기반의 표준화된 팩트체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교육, 편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03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전과 언론 탄압

러시아와 권위주의 국가들은 허위정보뿐 아니라 언론인과 탐사보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날은 리투아니아 공영방송(Lithuanian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LRT)과 리투아니아 저널리즘 센터(Lithuanian Journalism Centre)¹⁷⁾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탐사 저널리즘 페스티벌(International Investigative Journalism Festival)이 GlobalFact와 통합해 진행됐다. 주최 측은 탐사보도 기자가 경험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공작과 전쟁, 부패 등 취재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사회의 언론 불신과 정치적 압박도 함께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번 행사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탐사보도 기자와 팩트체커가 함께 참여해 정보전 대응과 언론 자유,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성은 팩트체킹이 단순한 사실 검증을 넘어 탐사보도와 결합해 정보 조작의 배후 조직과 운영 구조까지 추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림 6] 국제 탐사 저널리즘 페스티벌



* 출처: LRT

17) 1995년 설립된 비영리 언론 전문기관. 탐사보도와 언론인 교육, 국제 협력,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을 수행하며 언론 자유와 공익 저널리즘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민주주의는 정보전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연대, 대담함, 그리고 용기

기조연설에 나선 아메리칸 썬라이트 프로젝트(American Sunlight Project)¹⁸⁾ 공동창립자 겸 CEO인 니나 얀코비치(Nina Jankowicz)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정보전에서 직면한 가장 큰 위협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니나 얀코비치는 과거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허위정보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¹⁹⁾의 초대 책임자를 맡았다가 거센 정치적 공격과 온라인 괴롭힘 끝에 사임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허위정보 대응은 더 이상 외국의 정보 공작만을 의미하지 않고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그 정당성이 공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허위정보 대응 활동은 ‘정부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왜곡되고 있으며, 팩트체커와 연구자, 언론인은 허위정보를 막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단순한 피해 사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위정보 대응 진영 전체를 향해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니나 얀코비치는 팩트체킹 커뮤니티가 ‘연대(Solidarity)’, ‘대담함(Audacity)’, 그리고 ‘용기(Courage)’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면, “과감한 행동과 감정적 유대가 보상받는 시기에 너무 소심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으며,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팩트체커와 연구자들이 사실과 데이터만 제시하면 대중은 자연스럽게 설득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 정보전은 사실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권위주의 세력은 감정과 서사,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대중을 움직이지만, 허위정보 대응 진영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언어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소통해야 하며,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전달자(trusted messenger)’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¹⁸⁾ 미국의 초당적(nonpartisan)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허위정보와 외국의 정보 조작, 온라인 영향력 공작을 조사·분석하고 민주주의와 정보 무결성 보호를 위한 연구와 정책 제언 수행. 러시아·중국·이란 등의 정보 조작 활동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¹⁹⁾ 2022년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허위정보 대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의 정보 검열 우려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해 같은 해 활동을 중단하고 공식 폐지됨

[그림 7] 연설하는 니나 안코비치



* 출처: Delfi

특히 오늘날 정보전은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허위정보 연구와 팩트체크, 플랫폼 책임성 강화, 콘텐츠 검증 활동이 ‘검열’로 공격받고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이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신의 사례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연구지원 축소, 연구기관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 제한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적인 연구와 언론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국가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의 프라브다 네트워크(Pravda Network)²⁰⁾가 수백만 건의 콘텐츠를 만들어내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오염시키고, 친러시아 서사가 AI 답변에 반영되도록 시도한 사례도 소개하며 AI 시대 정보 조작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는 우리의 활동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허위정보 연구와 팩트체크가 권위주의 세력과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공격과 예산 삭감, 법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활동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니나 안코비치는 마지막으로 정보전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연대를 제시했다. 팩트체커와 탐사보도 기자, 연구자, 시민사회가 서로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 친러시아 성향 콘텐츠를 대량 생산·재게시하는 웹사이트 네트워크로, 러시아 선전 서사가 검색엔진과 대규모언어모델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보 조작 사례로 지적됨. 니나 안코비치는 GlobalFact 2026 연설에서 이 네트워크가 연간 최소 360만 건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일부 AI 챗봇이 친러·반우크라이나 허위 서사의 근거로 이를 인용했다고 설명함

또한 공격받는 동료를 외면하지 말고 공동 대응하고, 연구와 정보,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주의 세력이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정보전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러시아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국경을 넘는 탐사보도와 정보전 대응

“러시아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How to Investigate Russia)”는 GlobalFact 2026의 문제의식을 가장 현실적인 사례로 보여주었다. 첫날 허위정보를 국가안보와 사회적 회복력의 문제로 재정의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러시아의 정보공작과 영향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추적하고 드러낼 것인가를 다루었다. 세션에는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몰도바,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등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탐사보도 기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가 군사행동이나 노골적인 선전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금 지원, 정보기관 활동,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 현지 협력자 활용,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조작이 결합된 복합적 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국제 공동취재(cross-border collaboration)의 중요성이었다. 우크라이나 탐사보도 기자 안나 미로니우크(Anna Myroniuk)는 러시아를 조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여러 국가의 언론사가 힘을 합쳐 러시아의 행동이 개별 국가의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현장에서 물리적 증거와 온라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안나 미로니우크는 자신이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탐사보도 프로젝트 스킴즈(Schemes)²¹⁾ 사례를 소개하며, 러시아 국영 자금 지원 조직 프라브폰드(Pravfond)²²⁾의 유출 자료를 분석해 라트비아 리가에서 활동하던 러시아계 역사학자가 크렘린 선전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러시아 자금을 받고도 자신의 연구를 독립적인 학술 활동처럼 포장했으며, 우크라이나 기자만으로는 라트비아 현지 독자와 당국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라트비아 탐사보도 매체 리:발티카

21)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FE/RL) 우크라이나 지국이 운영하는 수상 권력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젝트. 2014년 설립 이후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추적해 왔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전쟁범죄와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 조사까지 취재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2) 러시아 정부가 설립한 해외 러시아인 지원 재단. 2025년 유출된 내부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유럽 각국의 친러 단체와 인사, 선전 활동 및 영향력 공작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짐

(Re:Baltica)²³⁾와 협력해 현지어로 보도하고 현지 보안 당국에 질문을 던진 결과, 해당 인물은 라트비아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례는 러시아 관련 조사가 한 국가의 언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지 언어와 제도, 취재원을 가진 지역 언론과의 협력이 실질적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사례로 러시아군의 화학작용제 사용 의혹을 조사한 보도를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회수된 최루가스 수류탄을 실험실에 의뢰해 분석하고 잔해의 표기와 라벨, 제조 정보를 추적해 생산자와 공급망을 확인한 사례였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나 국제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성사진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취재와 물리적 증거, 전문가 분석, 데이터베이스 조사가 결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쟁 지역에서 기자가 군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러시아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절차로 제시됐다.

[그림 8] 토론 중인 패널



* 출처: Delfi

델피 에스토니아(Delfi Estonia)의 탐사보도 팀장 홀게르 루네마(Holger Roonemaa)는 러시아가 발트 3국을 개별 국가로 보지 않고 더 큰 작전 공간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즉, 에스토니아에서 중요한 사건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에서도 중요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은 특정 국가의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홀게르 루네마는 최근 러시아의 사보타주와 모집 활동, 텔레그램을 통한 현지인 포섭, 발트해에서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²⁴⁾ 문제 등을 추적한 경험

23) 2011년 설립된 라트비아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기관. 발트 지역의 부패,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 허위정보, 인권 문제 등을 조사하는 국제 공동취재 기관. 탐사보도 결과를 무료로 공유하며 공익 저널리즘을 지향함

24)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해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공식 유조선 네트워크. 제3국 선적 등록, 복잡한 소유 구조, 선박 위치정보 차단, 공해상 환적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최근에는 일부 선박에 바그너 그룹(Wagner Group) 출신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하이브리드 안보 위협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을 공유했다. 특히 러시아 측 텔레그램 채널과 봇이 군사시설 방화, 우크라이나 지원 군수품 차량 확인, 폭력 행위 등을 대가로 암호화폐 보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델피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 신분으로 잠입 취재를 진행했고,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러시아 측으로부터 실제 지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작동 방식을 밝혀냈다.²⁵⁾

홀게르 루네마가 강조한 핵심은 러시아 조사의 목표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뒤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러시아가 다음에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계속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트해 그림자 선단 사례에서도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해 석유를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그너 출신²⁶⁾ 용병이나 전쟁 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을 선박에 배치해 선장과 선원을 통제하고, 서방 당국의 나포나 단속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상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허위정보 유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해상 안보, 군사 위협, 심리전까지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몰도바 탐사보도 매체 지아룰 데 가르더(Ziarul de Gardă)²⁷⁾의 나탈리아 자하레스쿠(Natalia Zaharescu)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유권자 매수 사례를 소개했다. 나탈리아 자하레스쿠는 몰도바에서 러시아가 온라인 선전뿐 아니라 실제 금전 지급과 조직적 동원 방식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에 개입하려 했으며, 기자가 잠입 취재와 몰래카메라를 통해 모집 과정과 금전 지급, 조직 내부의 작동 방식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몰도바 국민투표에서는 찬반 격차가 약 1만 표에 불과했는데, 보도 이후 러시아의 유권자 매수 구조가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고, 경찰 수사와 여론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나탈리아 자하레스쿠는 이 보도가 “독립언론이 선거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졌다고 설명하며, 작은 국가에서도 용기 있는 탐사보도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작가이자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인 그제고시 제츠코프스키(Grzegorz Rzeczkowski)는 러시아 영향력 공작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SNS 활동이나 정치자금만 분석해서는 부족하며, 과거 국가기록까지 함께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제고시 제츠코프스키는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PN)²⁸⁾가 보관하고 있는 공산주의 시기 비밀경찰과 정보기관 문서

25) 임무 중에는 군사시설 방화, 우크라이나 지원 군용 차량 식별, 심지어 암호화폐 10,000달러를 대가로 사람을 살해하라는 임무까지 있었다고 함

26)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민간 군사기업.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에서 군사작전과 정보활동을 수행. 2023년 무장 반란 이후 조직은 재편됐으나, 일부 인력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 또는 다른 민간 군사 조직으로 흡수돼 활동 지속 중

27) 2004년 창간된 몰도바의 독립 탐사보도 전문 매체. 부패와 권력 남용,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 선거 개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는 대표적인 공익 저널리즘 기관

28) 나치 점령기와 공산주의 시기 국가범죄를 조사하고, 당시 비밀경찰과 정보기관의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폴란드의 독립 국가기관. IPN의 기록을 활용해 냉전 시기 정보기관과 현재의 친러 네트워크 간 연계성을 추적하고 있음

를 분석해 친러 정치세력과 극우단체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냉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인 인적·조직적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탐사보도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연구자이자 소셜 미디어 평론가인 페카 칼리오니에미(Pekka Kallioniemi)는 자신이 운영해 온 바트닉 수프(Vatnik Soup)²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러시아 선전 서사를 확산시키는 인물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소개했다. 페카 칼리오니에미는 러시아 정보전이 매우 비대칭적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군사와 정보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유럽은 대체로 러시아의 행동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과거 러시아의 트롤 공장(Russian troll factory)³⁰⁾에서는 사람들이 교대로 온라인 댓글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LLM 오염(LLM poisoning)이 핵심 전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러시아의 서사와 허위정보가 대규모 언어모델의 학습·검색·응답 체계에 반영될 경우, 이용자가 챗봇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묻는 순간 그 답변 자체가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카 칼리오니에미는 앞으로의 정보전은 “누가 AI의 답변을 결정하는가”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탐사보도와 소셜미디어의 결합을 강조했다. 좋은 탐사보도가 충분한 독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전통 언론은 오랫동안 소셜미디어 공간을 과소평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바트닉 수프는 러시아 선전 서사를 퍼뜨리는 인물과 계정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가 X에서 연간 약 7억 조회 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러시아 정보전을 추적하는 작업은 정확성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도달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 후반부에서는 탐사보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러시아나 북한을 아무리 조사해도 그 국가의 행동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패널들은 탐사보도의 목표가 반드시 러시아를 직접 변화시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독립언론과 NGO라는 사실 자체가 탐사보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지아나 벨라루스처럼 러시아 영향

29) 핀란드 연구자 페카 칼리오니에미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분석 프로젝트.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인물과 네트워크를 분석·소개. 영향력 공작의 배경과 연결 관계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유머와 풍자를 활용한 콘텐츠로 러시아의 정보 조작 수법을 알리는 활동 중

30)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여론조작 조직을 통칭하는 표현. 가짜 계정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허위정보 유포, 여론 조작, 선전 활동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며, 대표 사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nternet Research Agency, IRA)가 알려져 있음

력이 강한 지역에서 독립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억압받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권위주의적 영향력 공작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패널은 “보도 한 건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몰도바 사례처럼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탐사보도가 사회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러시아를 조사하는 일은 특정 국가의 외교·안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정보공작은 국경을 넘어 작동하고, 현지 정치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 자금 흐름, 허위 서사,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와 결합된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취재, 유출 문서 분석, 현장 증거 확보, 잠입 취재, OSINT,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금융 추적, AI·LLM 감시가 모두 필요하다. 여기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러시아를 조사하는 방법이 곧 현대 정보전을 조사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사보도는 단순한 기사 생산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었다.

언론이 공격 대상이 될 때

정치적 압박, 소송, 온라인 공격, 그리고 연대의 필요성

허위정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문제를 넘어, 언론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슬로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조지아, 리투아니아 등 유럽 각국에서 언론이 어떻게 정치적·법적·사회적 공격을 받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고 언론을 향한 공격이 더 이상 독재국가나 전쟁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정치 권력, 기업, 친정부 세력, 온라인 플랫폼이 결합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림 9] 언론이 공격 대상이 될 때 세션 중 발표하는 참가자



* 출처: Delfi

탐사보도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방식

슬로베니아 탐사보도 기관인 오슈트로(Oštro)³¹⁾의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아누슈카 델리치(Anuška Delić)는 언론을 겨냥한 압박이 단순한 명예훼손 소송을 넘어 기초적인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누슈카 편집장은 오슈트로가 운영해 온 애셋 디텍터(Asset Detector)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인의 재산과 자산을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검증하는 공익 탐사보도였지만, 현재 슬로베니아 정보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이 공적 인물의 자산을 공개 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교차검증하고, 반론권을 보장한 뒤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분석·공개’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델리치는 이를 ‘관료적 테러리즘(bureaucratic terror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보았다. 법원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관, 검찰, 행정조사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언론사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방식이다. 델리치는 이것이 슬로베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복제되고 확장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가 언론 자유와 NGO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언론과 시민사회는 앞으로 더 강한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언론 탄압이 반드시 노골적인 검열이나 폐간 명령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적 탐사보도에 필요한 자료 수집, 검증, 분석, 보도 과정을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 데이터 처리’로 재해석하면 언론의 기본 기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델리치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과 제도가 권력 감시를 방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업과 로펌을 통한 기관형 SLAPP

리투아니아 15min.lt³²⁾의 탐사보도 기자 유라테 다물리테(Jūratė Damulytė)는 민간 기업과 로펌을 통한 압박 사례를 소개했다. 유라테는 조직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OCCRP)³³⁾와 함께 리투

31) 슬로베니아의 비영리 탐사보도·팩트체크 전문기관. 공공 감시와 허위정보 검증, 데이터 저널리즘을 수행하며 OCCRP 등 국제 공동취재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음

32)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독립 온라인 뉴스매체. 탐사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부패와 권력 감시, 허위정보 대응 보도를 수행하고 있음

33) 조직범죄와 부패, 자금세탁, 권력 남용 등을 공동 취재하는 국제 비영리 탐사보도 네트워크. 세계 각국의 독립언론과 협력해 국경을 넘는 탐사보도를 수행하고 있음

아니아 핀테크 기업 반케라(Bankera)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 투자자로부터 약 1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사업 성과와 자금 흐름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자들이 유출된 금융·은행 문서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보도 전부터 기자들은 5개 관할권의 5개 로펌으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고, 일부는 은행 비밀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 이후 정작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는 소송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 측은 리투아니아 내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언론사에 행정적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OCCRP가 취재를 위해 항공권을 지원한 사실을 회사 보고서에 왜 명시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물리테는 이를 법원을 통한 전통적인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³⁴⁾이 아니라 기관을 통한 SLAPP, 즉, 행정기관과 감독기관을 활용해 언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다물리테는 이런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조롱에 휘말리지 않으며, 계속해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 언론계가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빠르게 연대하고, 6개월 동안 여섯 차례 시위를 조직해 정치권의 후퇴를 끌어낸 사례도 소개했다. 이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별 언론사의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며 언론계 전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헝가리의 언론 장악과 ‘외국 대리인’ 프레임

헝가리 탐사보도 기자 사볼치 파니(Szabolcs Panyi)는 오르반 정부의 언론 장악 사례를 통해, 언론 탄압은 단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미디어 캡처(media capture)³⁵⁾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볼치는 헝가리에서 오르반 정권이 장기간에 걸쳐 공영방송과 민간 언론을 장악하고, 정부 자금과 친정부 대리인을 활용해 언론사를 인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헝가리에서는 독립 탐사 보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온라인 매체로 제한되었고 정부는 이들마저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 프레임을 차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³⁴⁾ 언론인, 시민단체, 연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실제 법적 승소보다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통해 공익적 취재와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에는 정치인과 기업, 이해관계자가 탐사보도와 부패 의혹 보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음

³⁵⁾ 정부, 정당, 재벌, 특정 기업 또는 권력집단이 법·제도, 재정 지원, 소유구조, 광고, 규제 등을 활용해 언론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보도 내용과 편집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 언론이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

기자는 자신도 선거 기간 중 “우크라이나 스파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과거에는 CIA의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실제로 기자를 간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점이다. 사볼치는 이것이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기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정부와 러시아 간 관계를 추적한 보도, 특히 헝가리 외교장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와 러시아 연방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간 통화 내용을 다룬 보도³⁶⁾에 대한 반격이었다.

사볼치는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이 서로의 언론 통제 방식을 학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르반, 안샤, 피초 등 유럽의 강경 정치인은 각국의 독립 언론을 어떻게 약화할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니, 그에 맞서 언론인도 국경을 넘는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리투아니아 언론인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영방송 독립성을 잃는 순간 언론 생태계 전체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 살해 이후에도 반복되는 적대적 환경

슬로바키아 안 쿠치악 탐사보도센터(Investigative Center of Ján Kuciak, ICJK)의 편집장 루카시 디코(Lukáš Diko)는 슬로바키아 언론 환경을 설명하며 기자를 향한 온라인 공격이 실제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루카시 편집장은 2018년 살해된 탐사보도 기자 안 쿠치악(Ján Kuciak)과 그의 약혼자 마르티나 쿠슈니로바(Martina Kušnírová)의 사례³⁷⁾를 먼저 제시했다. 당시 정치권이 기자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이 기자를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치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아 기자들에게 더욱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카시 편집장은 슬로바키아에서 정치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공격으로 대응하며, 기자를 겨냥한 유료 온라인 게시물에 대량 게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몇 달 사이 슬로바키아 정치인이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노출시킨 게시물이 3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격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으며, 실제 거리에서의 언어적·신체적 공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슬로바키아에서는

36) 헝가리 외교장관이 러시아 측과 EU 내부 논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대러 제재 문제 등을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음

37) 안 쿠치악은 정치권과 조직범죄의 유착을 취재하던 슬로바키아 탐사보도 기자로, 2018년 약혼자 마르티나 쿠슈니로바와 함께 피살됨. 사건은 슬로바키아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정치권 개혁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안 쿠치악 탐사보도센터가 설립됨

공영방송이 사실상 정부 통제 아래 놓였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도 거부되는 등 시민의 알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라도 공동취재와 협업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실제로 안 쿠치악 살해 이후 슬로바키아 언론은 내부 협력을 강화했고, 이는 안전성과 취재 성과를 동시에 높였다고 한다. 둘째, 언론인 보호 플랫폼을 구축해 공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보안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격이 심해질수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저널리즘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적 활동가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과 공익에 기반한 보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 최초의 SLAPP 판례

리투아니아 최대 온라인 매체 델피의 편집장 라사 루카이티테-브나라우스키에네(Rasa Lukaitytė-Vnarauskienė)는 리투아니아에서 언론사가 SLAPP에 대응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했다. 델피는 국유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매각된 의혹을 탐사보도한 뒤 건설회사로부터 반복적인 법적 청구를 받았다. 처음에는 개별 청구에 대응했지만, 청구가 10건을 넘어서자 언론사와 변호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명예훼손 대응이 아니라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델피는 리투아니아 언론인 단체에 해당 사건이 SLAPP의 특징을 갖는지 전문 의견을 요청했고, 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리투아니아 대법원은 해당 건설회사의 청구가 SLAPP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라사 편집장은 이를 리투아니아 언론계 전체에 중요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제 언론인들은 특정 소송이 SLAPP으로 보일 경우 그 성격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형 언론사는 변호사와 조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 언론이나 소규모 매체는 소송 비용과 정치적 압박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험한 탐사보도를 단독으로 감당하기보다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보도하면 압박을 분산하고 보도의 영향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 말미에는 소셜미디어와 딥페이크 공격도 언급했다. 라사 편집장은 소셜미디어가 이미 시민의 주요 정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격을 ‘가짜 계정이 하는 일’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사회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보도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언론 탄압

조지아 다큐멘터리 사진가 디나 오가노바(Dina Oganova)는 조지아 사례를 통해 언론을 향한 공격이 온라인 담론이나 소송을 넘어 물리적 폭력과 국가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디나 오가노바는 조지아가 이미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과정을 먼저 지나왔다고 말하며, 566일 넘게 이어진 거리 시위와 언론 탄압을 소개했다. 특히 자신의 동료이자 방송사 카메라맨이었던 레크소 알렉산드레 라슈카라바(Lekso Aleksandre Lashkarava)가 정부 지지 급진 세력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한 사건³⁸⁾을 언급하며 자신의 저항사를 공유했다.

디나 오가노바는 조지아에서 언론인 신분증이나 카메라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카메라를 든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되었고, 가해자는 생중계 장비를 자르기 위해 가위를 들고 뛰어다닐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식 ‘외국대리인법(Foreign Agents Law)’³⁹⁾을 도입하려 했고, EU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인과 시민사회, 야당 인사, 학생, 문화예술인까지 체포·구금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언론 자유가 단지 언론인의 직업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생존 조건이라는 점이다. 디나는 방송 장악을 ‘너무 늦게 깨달은 문제’라고 말하며, 방송을 잃으면 지방과 마을의 시민에게 사실을 전달할 통로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지아의 젊은 세대가 여전히 거리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발표는 언론이 표적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빠른 징후임을 보여주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오늘날 권력은 언론 보도를 단순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은 언론을 ‘가짜뉴스 생산자’나 ‘외국 세력의 대리인’으로 낙인찍고, 기업은 로펌과 행정기관을 활용해 보도를 지연시키며, 온라인 세력은 기자 개인을 공격하고, 정부는 공영방송과 감독기관을 장악하려 한다. 이 모든 방식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일한 전략으로 작동한다.

패널들이 보여준 대응 전략 역시 명확했다. 첫째, 언론은 공격이 발생한 뒤에야

38) 레크소 알렉산드레 라슈카라바는 조지아 독립방송 TV Pirveli 소속 카메라 기자로, 2021년 7월 트빌리시 프라이드 행사를 취재하던 중 극우 반(反)LGBTQ 시위대의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음. 안면 골절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으나, 몇새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그의 사망은 조지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가 기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짐

39)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정부 등록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 조지아에서는 독립언론과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됨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법적·조직적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SLAPP이나 온라인 공격은 개별 언론사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정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정치적 장악 시도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넷째, 공격받는 기사를 고립시키지 않는 연대가 필요하다. 언론이 단순히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허위정보와 권위주의 정치가 직접 공격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04 AI 시대 팩트체킹의 전환과 지속가능성

생성형 AI 시대, 팩트체킹은 기사 검증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AI 감시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

팩트체킹의 인프라화: 글로벌 공동 저장소 구축

이번 세션은 GlobalFact 2026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발표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까지 팩트체킹은 잘못된 정보를 검증해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팩트체킹의 핵심 자산은 기사(article) 자체가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data)로 바뀌었다. 개별 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소비되고 잊히지만, 수십만 건의 팩트체크가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될 경우 AI, 연구기관, 언론사,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 EFCSN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테그리티 베이스(Integrity Base, 정보무결성 저장소)라는 공동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팩트체킹을 하나의 기사 생산 활동에서 정보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팩트체크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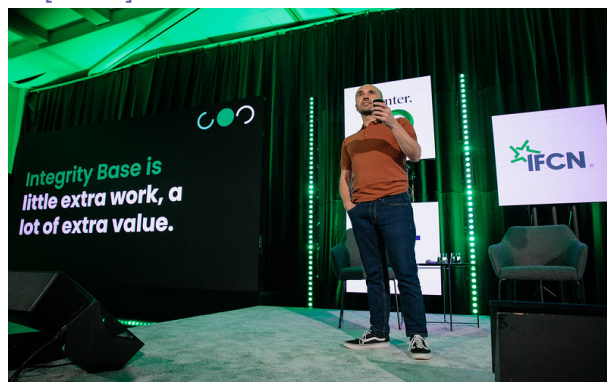
EFCSN 코디네이터 슈테판 뮌트게스(Stephan Mündges)는 발표를 시작하며 팩트체킹의 가치를 다시 정의했다. 슈테판 뮌트게스는 “모든 팩트체크는 중요하다. 하지만 모

든 팩트체크가 함께 모이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개별 팩트체크는 하나의 허위정보를 바로잡지만 수천 건의 팩트체크를 함께 분석하면 허위정보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는지, 국가별로 어떤 내러티브가 반복되는지, 어떤 행위자가 동일한 주장을 여러 언어로 퍼뜨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어느 대형 AI 기업 연구원이 “전 세계 모든 팩트체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당시에는 그런 곳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불편함이 아니라 팩트체크 산업 전체의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많은 기관이 매일 팩트체크 자료를 생산하지만, 데이터는 각 기관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연구자는 물론 AI 개발자나 언론사도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이는 통찰(insight), 영향력(impact), 수익(revenue) 모두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FCSN은 인테그리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사 저장소가 아니라 팩트체크, 검증 대상 주장, 허위정보 사례를 함께 관리하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이다. 중요한 점은 기사가 별도의 양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여 기관이 기사를 발행하면 API, 워드프레스 플러그인(WordPress plugin)이나 승인된 크롤러를 통해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이후 AI가 기사 전문을 분석해 검증 대상 주장, 판정 결과, 주장한 인물,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AI가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만 기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설계해 업무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품질은 유지하는 구조다. 슈테판 윈트게스는 이를 ‘추가 업무를 조금 더 해 훨씬 큰 가치를 얻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림 10] 인테그리티 베이스를 소개하는 슈테판 윈트게스



* 출처: Delfi

데이터를 기사가 아닌 ‘공동 인프라’로

인테그리티 베이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가 소유하는 인프라라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기존의 클레임리뷰(ClaimReview)⁴⁰⁾와 같은 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개별 기관이 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인테그리티 베이스는 팩트체커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데이터 수집 방식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허용할지까지 모두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를 ‘공동체가 통제하는 인프라(community-controlled infrastructure)’라고 표현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었다. 슈테판 윈트게스는 미디어 모니터링 기업 CEO를 만났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 회사는 이미 여러 팩트체크 기관의 데이터를 웹에서 수집해 자체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었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를 생산한 팩트체킹 기관에는 아무런 수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윈트게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작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테그리티 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외부에 제공해, 그 수익을 참여 기관이 함께 배분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사 판매가 아니라 검증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어떤 데이터를 어느 기업에 제공할 것인지, 어떤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 등은 모두 공동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FCSN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원 기관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인테그리티 베이스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을 마쳤고, 유럽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뒤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⁴¹⁾

생성형 AI 시대에 팩트체킹 기관의 경쟁력은 ‘누가 먼저 기사를 쓰는가’에 있지 않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표준화하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인테그리티 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팩트체킹을 공공 데이터 인프라이자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40) 구글과 Schema.org 등이 개발한 팩트체크 기사용 표준 메타데이터 형식. 검증 대상 주장, 판정 결과, 출처 등을 검색엔진과 AI가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데이터 규격

41) 컨소시엄 파트너인 Newtral, Science Feedback, FactReview와 함께 구축 중이며, 2026년 가을 서비스 개시 예정

AI의 위협: ‘답변 경제’와 혼란의 확산

‘검색’을 끝내고 ‘답변’을 시작한 AI

이번 세션에서는 AI를 다룬 여러 발표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들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검색(Search)’ 중심에서 ‘답변(Answer)’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직접 비교하며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챗GPT(ChatGPT), 제미니(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같은 AI가 여러 출처를 종합해 하나의 답변을 생성하고 이용자는 그 결과만 소비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답변 경제(Answer Economy)’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보다 AI가 생성한 답변이 이용자의 첫 번째 접점이 되며, 출처와 맥락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언론사의 트래픽 감소나 광고 수익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신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답변 경제(Answer Economy)

사용자가 여러 검색 결과를 비교하는 검색 경제(Search Economy)에서 벗어나 생성형 AI가 여러 출처를 종합해 하나의 답변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답변을 소비하는 새로운 정보 유통 구조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기사보다 AI의 답변이 이용자의 첫 번째 접점이 되고, 출처와 맥락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된다.

동시에 생성형 AI는 새로운 공격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AI는 단시간에 수백 개의 허위 게시물과 이미지, 영상, 음성을 생성할 수 있으며, 국가나 조직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세션 제목에 포함된 ‘혼란의 매개체(Vector for Chaos)’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의미한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인프라가 되고 있다. 앞으로 팩트체커의 역할도 개별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AI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림 11] AI 위험 세션 중 발표하는 패널



* 출처: Delfi

AI는 중립적인 정보 제공자가 아니다

히리예 메흐메티(Hyrije Mehmeti)는 코소보의 팩트체크 기관 하이브리드 인포(Hibrid.info)⁴²⁾에서 수행한 생성형 AI 비교 실험을 소개했다. 최근 AI를 둘러싼 논의가 주로 성능 경쟁에 집중되고 있지만, 팩트체커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가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답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을 반영해 답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인포는 미국의 챗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러시아의 앨리스(Alice)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 100개를 입력하고 답변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다. 챗GPT는 세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비교적 다양한 출처를 종합해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딥시크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서는 중국 정부의 서술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확인됐다. 앨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크림반도, 러시아의 대외정책 등 민감한 주제에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동일한 질문이라도 어떤 A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은 AI가 결코 중립적인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메흐메티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I의 편향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정보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개발 환경, 운영 기법

42) 코소보의 독립 팩트체크 및 허위정보 분석 전문기관. 국내외 허위정보와 외국의 영향력 공작, 정보 조작 캠페인 등 조사·분석 및 AI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 수행

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용자는 AI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메흐메티는 앞으로 AI의 답변을 팩트체킹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용하는지, 어떤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지까지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AI 자체가 새로운 팩트체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찾는 시대에서 답을 받는 시대로

아랍 탐사보도 기자 네트워크(Arab Reporters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RIJ)⁴³⁾ 사무총장 라완 다멘(Rawan Damen)은 생성형 AI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정보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비교하는 검색 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AI가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생성하는 답변 경제가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용자는 더 이상 언론사의 기사나 원문을 직접 읽지 않고 AI가 요약한 결과만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언론과 독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완 다멘 사무총장은 가장 우려되는 변화로 출처(Source)의 소멸을 꼽았다. 검색 기반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기사 제목과 언론사를 확인하고 여러 매체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AI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하나의 답변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원문 작성자와 출처가 점차 보이지 않게 된다. 이용자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언론은 독자와 직접 접촉할 기회를 잃고, 신뢰 역시 AI 인터페이스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언론사가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트래픽이 아니라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일 것이다.

답변 경제에서는 ‘무엇이 진실인가’보다 ‘AI가 뭐라고 답했는가’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AI는 기존 콘텐츠를 종합해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에 허위정보가 포함되거나 특정 내러티브가 반복적으로 유입되면 잘못된 정보가 정답인 양 유포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팩트체커는 개별 기사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AI가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어떤 답변을 생성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⁴³⁾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비영리 탐사보도 지원기관. 2005년 요르단 암만에서 설립됐으며, 탐사보도 교육, 국경 간 공동취재, 데이터저널리즘, 팩트체킹, 언론인 안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사기 규모를 바꾸고 있는 AI

노드VPN(NordVPN)⁴⁴⁾의 사이버보안 자문이자 대변인인 아드리아누스 바르먼호번(Adrianus Warmenhoven)은 생성형 AI가 허위정보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와 금융사기의 양상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피싱이나 신원 사칭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AI를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을 빠르게 복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은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기업 대상 피싱 공격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보다 인간의 신뢰를 노리는 공격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AI 시대의 정보 무결성은 단순히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 습관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팩트체커 역시 AI가 만들어내는 허위정보뿐 아니라 AI 기반 사기와 사회공학 공격을 이해하고 대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AI를 감시하는 팩트체킹

리드 스토리즈(Lead Stories)⁴⁵⁾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앨런 듀크(Alan Duke)는 AI 시대 팩트체킹의 역할이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런 듀크 편집장은 생성형 AI가 뉴스를 요약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시대에는 AI 자체가 새로운 검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AI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했는지, 특정 주장에 대해 왜 그러한 결론을 제시했는지, 동일한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팩트체커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기업이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블랙박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AI가 언론과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기업에도 언론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팩트체커는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역할뿐 아니라 AI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알고리즘 편향과 오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공공 감시자(public watchdog)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4) 리투아니아에서 설립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VPN(가상사설망) 서비스를 비롯해 위협 탐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AI 기반 보안과 온라인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 및 정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45) 2015년 설립된 미국의 독립 팩트체크 전문기관. AI와 디지털 검증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허위정보를 검증하고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이 세션은 ‘검색의 시대에서 답변의 시대로(Search to Answer)’라는 변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검색엔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재편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되었다. 특히 AI가 정보의 출처를 가리고, 허위정보를 대규모로 생성하며, 사이버 범죄와 결합하는 현실에서 팩트체킹의 역할 역시 기사 검증을 넘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AI 시대 언론과 팩트체킹 기관이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Global Fact-Checking Awards가 보여준 세계 팩트체킹의 새로운 기준

‘무엇을 검증했는가’보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가’

GlobalFact의 마지막 일정은 Global Fact-Checking Awards 시상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콘퍼런스의 시상식은 행사를 마무리하는 부대 행사 정도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이번 시상식은 오히려 지난 사흘 동안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종합 보고서에 가까웠다. IFCN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협업(Collaboration), 창의적 형식(Creative Format), 사회적 영향력(Impact), 최고상(Gold Standard) 등 네 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올해 역시 20명의 심사위원이 공공성, 검증의 엄밀성, 독창성,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IFCN과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허위정보를 검증했는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검증이 실제 사회 변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AI와 딥페이크, 건강 허위정보, 국제 공동취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성 역시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됐다.

[그림 12] GlobalFact 2026 수상자



* 출처: Delfi

협업(Collabortion):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 대응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협업이었다. 수상작은 대부분 단일 언론사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팩트체크 기관과 탐사보도 조직이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였다. 대표적으로 ‘미스터 딥페이크의 정체를 밝히다(Unmasking Mr. Deepfakes)’ 프로젝트는 덴마크의 체크데트(TjekDet)⁴⁶⁾ 을 중심으로 캐나다 방송공사(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CBC)⁴⁷⁾ , 벨링캣(Bellingcat)⁴⁸⁾ , 폴리티켄(Politiken)⁴⁹⁾ 등이 협력해 세계 최대 규모의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한 국제 공동취재 사례다. 심사위원단은 OSINT,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을 결합한 조사 방식뿐 아니라 실제 플랫폼 폐쇄에 기여한 사회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허위정보와 디지털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팩트체크 역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인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 46) 2016년 설립된 덴마크의 독립 팩트체크 전문기관.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실 검증과 허위정보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행. 국제 공동취재와 디지털 검증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
 - 47) 1936년 설립된 캐나다의 공영방송. 뉴스·시사·탐사보도를 비롯 라디오·텔레비전·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공영 미디어 기관
 - 48) 2014년 영국의 언론인 엘리엇 히긴스(Eliot Higgins)가 설립한 OSINT 기반 탐사보도 단체. 위성사진, 영상, 사진, SNS 게시물 등 공개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전쟁 범죄, 국제 분쟁, 인권침해, 허위 정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함
 - 49) 1884년 창간된 덴마크의 대표적인 전국 일간지. 탐사보도와 정치·사회 분야 보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 공동취재와 디지털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

창의적 형식(Creative Format): 팩트체크 전달 방식도 혁신 대상

올해 수상작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역시 팩트체킹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이 부문 수상작인 ‘허위정보, 실제 피해자(Fake News, Real Victims)’는 허위정보 실제 피해자 10명의 이야기를 기사뿐 아니라 영상,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 허위정보의 사회적 피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단순히 사실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허위정보의 영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형식을 확장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영향력(Impact): 검증 이후의 변화까지 평가

영향력 부문은 팩트체킹이 실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폴란드의 ‘플라즈마 활성화수 허위 광고 실태 추적(Plasma-Activated Water Investigation)’으로, 허위 의료광고를 폭로한 뒤 행정조사와 법적 조치, 온라인 광고 삭제 등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히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선과 소비자 보호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팩트체킹의 성공 기준이 조회나 기사 수가 아니라 정책 변화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고상(Gold Standard): AI 시대 탐사보도의 새로운 기준

최고상은 나이지리아 국제탐사보도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ICIR)⁵⁰⁾와 팩트체크허브(FactCheckHub)⁵¹⁾의 ‘AI를 활용한 폰지 사기 추적(AI-assisted Ponzi Schemes)’ 프로젝트가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한 폰지 사기⁵²⁾와 메타, 유튜브(YouTube) 등 플랫폼의 관리 부실을 탐사보도로 규명한 사례다. AI 기술을 범죄에 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분석하고, 플랫폼의 책임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AI 시대 팩트체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번 GlobalFact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 생성형 AI, 플랫폼 책임성, 정보무결성이라는 핵심 의제가 실제 우수 사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0) 2010년 설립된 나이지리아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기관. 부패, 인권, 공공재정, 선거, 허위정보 등 공익적 사안을 조사·보도하며 서아프리카 지역의 탐사보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음

51) 나이지리아 독립 팩트체크 전문기관. 허위정보 검증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거 및 공공정책 관련 사실 검증을 수행. 서아프리카 지역의 팩트체킹 협력과 연구 지원

52)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표 1] GlobalFact 2026 수상작

부문	수상 기관(국가)	수상작	주요 내용	비고(시사점)
협업 (Collaboration)	CBC News(캐나다), TjekDet(덴마크) 등 국제 공동취재팀	Unmasking Mr. Deepfakes	세계 최대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Mr. Deepfakes' 운영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플랫폼 운영 구조 규명	국제 공동취재와 OSINT를 활용한 대표 사례
창의적 형식 (Creative Format)	Maldita.es(스페인)	Fake News, Real Victims	허위정보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다큐멘터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	기사 중심에서 벗어난 이용자 참여형 팩트체크
영향력 (Impact)	Pravda Association (폴란드)	Plasma- Activated Water Investigation	건강 허위정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정부 조사, 판매 중단 등 사회적 변화 유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팩트체크 사례
최고상 (Gold Standard)	International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ICIR), FactCheckHub (나이지리아)	AI-powered Ponzi Scheme Investigation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투자사기 구조 추적	AI-OSINT를 활용한 고품질 검증 사례

이번 Global Fact-Checking Awards는 단순히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상식이 아니라, 국제 팩트체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수상작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 팩트체킹의 방향은 ▲국제 공동취재와 협업 ▲AI·딥페이크 등 새로운 정보 환경 대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대중 소통 ▲정책과 제도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팩트체킹이 더 이상 개별 기사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보 무결성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05 GlobalFact 2026이 던지는 의미

GlobalFact 2026은 팩트체킹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과거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의 논의가 개별 허위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것인가에 집중됐다면,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 조작이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에 따라 팩트체킹 역시 개별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넘어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었다.

행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회복력, 정보 무결성, FIMI, AI, 협업 등은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가 허위정보를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영향력 작전과 생성형 AI가 결합된 복합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의 사회 전체적 모델은 언론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으며, 정부와 플랫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 전체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는 올해 행사의 핵심 의제였다. 행사에 모인 이들은 AI를 단순히 활용해야 할 기술로 보지 않았다. AI가 정보 소비 방식을 검색의 시대에서 답변의 시대로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팩트체킹 역시 기사 생산을 넘어 검증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테그리티 베이스 구축 논의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Global Fact-Checking 수상작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수상작은 단순히 허위정보를 많이 검증한 사례가 아니라 국제 협업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AI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며, 정책 개선까지 연결한 프로젝트들이었다. 이는 앞으로 국제 팩트체킹 공동체가 기사의 양보다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lobalFact 2026은 팩트체킹을 단순한 언론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보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한 행사였다.

한국 언론에 주는 시사점

GlobalFact 2026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에도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허위정보 대응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허위정보 대응은 개별 콘텐츠를 검증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허위정보를 국가 차원의 영향력 공작과 정보 조작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FIMI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작전의 행위자와 유통 구조, 내러티브를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외 영향력 공작, 생성형 AI 기반 정보 조작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보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팩트체킹을 공공 데이터 인프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개별 기사만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검증 결과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축적하고, 언론사와 플랫폼, AI 서비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공동취재와 데이터 공유, 기술 협력이 대부분의 우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언론사와 팩트체크 기관, 학계, 연구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허위정보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AI 활용과 함께 신뢰 확보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발표자는 AI 활용 자체보다 인간의 검증과 편집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 언론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절차와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무결성과 사회적 신뢰를 언론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GlobalFact 2026은 허위정보 대응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짓 정보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언론의 신뢰 회복과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무결성 증진을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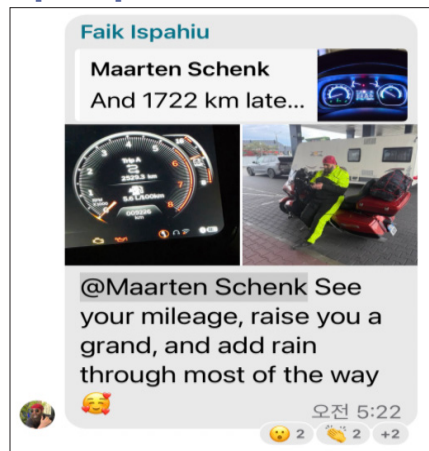
필자는 행사 첫날부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개회식은 새로운 기술이나 국제 협력의 성과를 자랑하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세션이 이어질수록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한 참가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로 전날 러시아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모국의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기자는 팩트체크 활동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정도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많은 경우 팩트체커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굳이 묻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현실을 그곳에서는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몇백 달러의 참가비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행사 참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시그널(Signal)’에는 빌뉴스를 향하는 여정이 연일 올라왔다. 비행기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국경을 넘는 사람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1,200km를 직접 운전해 오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코소보의 한 팩트체커였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2,500km를 달려오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참가자들은 그 여정을 함께 응원했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국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 작은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팩트체킹은 모니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활동일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감옥과 망명,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이번 GlobalFact 2026은

[그림 13]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참가자



* 출처: Signal 대화 캡처

‘사실을 검증한다’는 행위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갖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빌뉴스에서 만난 팩트체커들은 기사를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다.

빌뉴스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순간부터 마지막 출국일까지 비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때로는 한국의 장마 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고, 때로는 우산을 펼칠지 말지 망설여질 만큼 가느다랗게 흘날렸다. 하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을 바꿨다. 한 참가자는 주최 측이 “6월은 빌뉴스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두고, 전 세계 팩트체커가 모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팩트체크해야 할 주장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행사장은 한바탕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그칠 때 하늘에는 어김없이 무지개가 걸렸다. 한 줄의 무지개가 도시를 가로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선명한 쌍무지개가 빌뉴스의 붉은 지붕 위를 감싸안았다. 며칠 동안 이어진 비를 견뎌낸 뒤 마주한 그 풍경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무지개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전 세계의 팩트체커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언론은 공격받고, 재정은 악화되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 경험을 나누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빌뉴스에 모였다. 비가 그친 뒤에야 비로소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나듯, 정보 무결성을 향한 이들의 노력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빌뉴스를 떠났다. 그 무지개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림 14] GlobalFact 2026 참가자 전체 사진



* 출처: Delfi

PART II

'단체 e메일함'으로 본 글로벌 팩트체킹 생태계

— 위기는 깊어졌지만, 연대는 멈추지 않았다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 / 미디어학 박사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 / 미디어학 박사

1996년부터 30년째 언론계에 몸담아 왔다. 가짜 뉴스(허위정보) 문제에 일찍이 경각심을 갖고, 100여 차례의 특강을 통해 생활 속에서 허위정보를 분별해 내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가짜 뉴스에 대한 언론인 인식과 책임'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미디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소중한 사람이 음모론에 빠졌습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공저), 『팩트체크 저널리즘』(공저), 『팩트체킹』, 『보험, 행복인생 길라잡이』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미디어상, 통일언론상, 인권보도상, 한국조사보도상, 생명사랑대상, 씨티대한민국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jcjung@naeil.com

2024년 10월, 조지아의 한 팩트체커가 전 세계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것 같은 가짜 음성이 돌고 있다. 판별할 도구를 아는 분이 계신가.” 33분 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답장이 왔다. 두 시간 뒤에는 그리스 팩트체커가 기술 가이드를 보냈고, 또 다른 나라의 답이 이어졌다. 9일 뒤, 조지아 팩트체커는 네 나라의 도움을 받아 검증 기사를 완성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모인 하나의 이메일함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 안에는 검증 요청과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 무너지는 재정, AI라는 새로운 위협, 그리고 전쟁터에서 스러진 동료를 향한 애도가 함께 있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지금 놓인 자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글은 이메일함이 들려준, 글로벌 팩트체크 생태계 4년 5개월의 기록이다.

01 들어가며 — 왜 이메일함인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이 한곳에 쌓이는 공간이 있다. 미국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가 운영하는 공개 이메일링 리스트(public@ifcn.org)다. IFCN의 원칙강령에 서명한 세계 각국 팩트체크 기관의 팩트체커와 언론인, 연구자들이 가입해 있고,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면 전 세계 동료들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필자 역시 IFCN 커뮤니티 일원으로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주고받는 소식을 매일 받아 본다. 이 글은 2022년 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IFCN 공개 이메일링 리스트에 오간 이메일 전체를 읽고, 그 위에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참여 관찰을 엮어 쓴 글로벌 팩트체크 생태계의 동향 분석이다. 이 글은 글로벌팩트 2026 행사 ‘바깥’에서, 그리고 그 이전 4년여 동안 이 생태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메일함인가. 공식 보도자료나 학술 논문이 ‘결과’를 기록한다면, 이 이메일함은 ‘과정’을 기록한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요청과 응답 사이에 몇 분이 걸리는지, 어떤 위협이 어떻게 공유되는지, 어떤 죽음이 어떻게 애도되는지가 실시간으로 남는다. 무심히 지나쳤던 이메일을 찬찬히 다시 읽고 내린 결론은 이렇다. 이곳은 공지사향 게시판이 아니라 글로벌 팩트체크의 ‘신경계’다. 그리고 이 신경계에 남은 기록은 지금의 생태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매우 희귀한 1차 사료다.

이제부터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2022~2026년 사이 이 생태계를 뒤흔든 변화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와 글로벌 팩트체킹이라는 지도 위에서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차례로 짚어 보고자 한다.

02 33분만의답장 - 이네트워크가작동하는방식

먼저 4년 5개월치 이메일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이 채널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뉴스레터가 아니라 ‘작전 채널’에 가깝다. 이 분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충분히 설명된다.

[표 1] IFCN 공개 이메일링 리스트의 기능별 분포(2022.2~2026.7)

부문	비중	대표사례
실시간 검증 협력 요청·응답	약 25%	가자 '케이지 속 아이들' 영상, 조지아 음성 포렌식, 빌 게이츠 재판 주장, 대만 영상 위치 확인
연구·도구 공유	약 20%	위트니스(WITNESS) 딥페이크 긴급대응팀, AI 탐지 도구, AI 판별 퀴즈
보안·위협 경보	약 15%	표적 피싱, 탈레반 급습, 디도스 공격, 페이스북 집단 신고 공격
탐사 결과 배포	약 15%	러시아 '도플갱어' 공작(유명 언론사를 통째로 사칭하는 위장 사이트 캠페인), 몰도바 딥페이크, 틱톡 AI 착취 콘텐츠
행사·프로그램 공지	약 15%	지원금, 글로벌팩트, 어워드
인간적 연대	약 10%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지진, 동료 가족 피습, 레바논 사와브 팀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의 이메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날 IFCN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들과 함께한다는 성명을 냈고, 분 단위로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매체 목소리우크라이나(VoxUkraine)¹⁾ 기자는 전쟁 현장에서 직접 “동료들에게 감사한다.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IFCN은 우크라이나 팩트체커들이 그날그날 발행한 검증 기사 목록을 매일 전 세계에 배포했다. 전쟁 중에도 검증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허위정보에 대응할 참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1) <https://voxukraine.org/en/>

하나의 영상에 5개국이 달려들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충돌한 가자 전쟁 초기,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새장에 가뒀다”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브라질의 팩트체킹 기관 루파(Lupa)²⁾가 검증 도움을 요청하자 같은 날 프랑스·미국·스페인·파키스탄의 팩트체커들이 동시에 응답했다. 프랑스 기자는 이 영상이 하마스 공격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에 돌던 것임을 확인했고, 스페인 팩트체커는 아랍어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아이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시리아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이 시리아 내전 시기의 오래된 콘텐츠라는 결론이 국제 공조로 확인됐다. 브라질·프랑스·미국·스페인·파키스탄이 하나의 영상을 향해 각자의 전문성으로 동시에 달려든 이 커뮤니티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다.

33분 만의 답장

지금까지 확인된 다양한 국제 공조 사례 가운데 요청부터 해결까지 걸린 시간이 놀라울 만큼 짧았던 사례는 2024년 10월 조지아 의회 선거 건이다. 조지아의 팩트체킹 기관이 “AI로 만든 가짜 음성을 판별할 도구가 필요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33분 뒤 미국의 동료가 자신들이 써 본 탐지 도구들의 실전 경험과 어떤 상황에서 오판이 나는지를 공유했고, 2시간 뒤에는 그리스의 팩트체커가 기술 가이드까지 보냈다. 9일 후 조지아 팀은 4개 기관의 분석을 종합한 선거 음성 조작 의혹 검증 기사를 발행했다고 알려 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공개 이메일링 리스트는 팩트체킹 작업과 협력에 정말 중요하다.” 도움 요청부터 기사 발행까지 전 과정이 이 이메일함 안에서 완결됐다.

설문에서 보고서, 다시 대중용 온라인 퀴즈로

2026년에는 협업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 튀르키예의 팩트체킹 기관 테이트(Teyit)³⁾가 4월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퍼지는지 함께 조사하자”는 설문을 돌렸고, 두 달 뒤 아르메니아·덴마크·그리스·스페인·슬로바키아 5개국 파트너와 공동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발표 한 달도 안 된 7월 초, 테이트는 그 검증 데이터를 일반인이 ‘AI가 만든 가짜’를 직접 판별해 보는 온라인 퀴즈로 만들어 다시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공동 조사(4월) → 보고서(6월) → 대중용 리

2) <https://lupa.news/>

3) <https://teyit.org/>

터러시 도구(7월)로 이어진 이 사이클은 이 이메일함이 단순한 검증 품앗이를 넘어 글로벌 공동 연구와 실행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즉석 공조

극적인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공조는 이 이메일함의 일상이다. 2024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팩트체커가 “빌 게이츠가 네덜란드 법정에 섰다”는 주장의 진위를 묻자 당일 네덜란드·그리스·프랑스 기관이 동시에 검증에 착수해, 유럽 3개국이 각자의 언어로 팩트체크 결과물을 발행했다. 같은 해 4월 미국의 스페인어권 팩트체크 기관이 대만 관련 틱톡(TikTok) 영상의 촬영 위치를 문의하자 다음 날 대만의 팩트체커가 구글 지도의 정확한 좌표와 자체 검증 기사로 응답했다. 24시간 내 해결된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팩트체케도(Factchequeado)의 조나단 풀라(Jonnathan Pulla)가 이민자를 표적으로 한 사기 사이트(Globalusagreencard.org)를 조사 중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가짜 영주권 사이트 조사에는 인터넷 아카이브⁴⁾의 마크 그레이엄(Mark Graham)이 웨이백머신(Wayback Machine) 아카이브 링크를 즉시 보냈고, 호주 RMIT 대학의 고든(Gordon Farrer)은 스캠어드바이저(ScamAdviser) 데이터를 공유했다. 조사기간 중 아카이브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국가 간 협력은 2022년 2월, 아제르바이잔의 팩트체커가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백신 영상의 검증을 요청하고 인도 기관이 즉시 확인에 착수한 기록이다.

재난 한가운데서 온 이메일

20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의 스레드는 이 채널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지진 발생 1주일 후 튀르키예 테이트의 기자가 “3만 1,00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되는 와중에도 팀이 계속 팩트체크를 발행하고 있다”며 재난 관련 허위정보 모음을 공유했다. 같은 스레드에서 시리아의 팩트체크 기관 베리파이-시리아(Verify-sy)⁵⁾의 답장은 담담해서 더 아팠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팀원 대부분이 가족 또는 개인적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지아·대만·보스니아·인도·나이지리아의 동료들이 응원을 보냈다.

4) <https://archive.org/>. 웹페이지를 시간순으로 보존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비영리 디지털도서관.

5) <https://verify-sy.com/>

같은 시기 덴마크의 팩트체킹 기관이 지진 관련 사진의 진위를 러시아어권 동료들에게 문의하자, 우크라이나 팩트체커가 러시아 법제도의 맥락을 설명하고 프랑스 AFP가 고해상도 역이미지 검색으로 원본 출처를 밝혀냈다. 재난 지역에 대한 위로와 국경을 넘은 검증이 하나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작동한 것이다.

정치를 넘어 생사의 문제로

이 채널이 다루는 허위정보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콩고민주공화국의 팩트체커는 에볼라 17차 발병 한 달 만에 의심 사례 670건에 160명이 숨졌는데도 발원지에서 질병이 ‘신비로운 저주’로 인식되며 공식 보건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커뮤니티에 알렸다. 아프리카의 팩트체커들에게 허위정보 대응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보건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었다.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

이 메일링 리스트는 단순한 공지 채널이 아니라 전 세계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어떤 단일 기관도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반응 속도 — 당일 5개국, 33분, 24시간 — 가 이 공간의 실질적 가치이며,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상호 신뢰다. 그 신뢰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팩트라는 연례 대면 행사에서 만들어진다. 필자가 일곱 차례 참가하며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컨퍼런스장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얼굴들이 다음 해 이메일함에서 서로의 요청에 가장 먼저 답하는 이름이 된다.

03 팩트체크 생태계를 뒤흔든 네 가지 변화

이 네트워크가 검증 협력을 이어가는 동안 네트워크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4년 5개월의 기록을 관통하는 변화는 네 갈래다. 팩트체커가 검증자가 아니라 공격 대상이 된 것, 성장을 떠받치던 플랫폼 의존 모델이 무너진 것, AI가 위협이자 도구로 동시에 도래한 것, 그리고 지속가능성 자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변화 ① 공격받는 검증자 — 팩트체커는 이제 ‘표적’이다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지도 있다. 이메일함에는 어두운 기록도 쌓여 갔다. 팩트체커에 대한 위협이 산발적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먼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팩트체크 생태계에 대한 위협 유형과 대표 사례(2022~2026)

위협 유형	대표 사례	의미
전쟁·분쟁 피해	레바논 사와브 팀원 알라 살만 사망(2026.6)	자택 폭격 → 혼수상태 → 사망. 분쟁 지역 팩트체커의 생명 위협이 현실화
플랫폼 이탈	글로벌팩트 2026에 미국 대형 플랫폼 최초 불참 (2026.6)	2017년 마드리드 이후 9년 협력 공식 단절. 참가 규모 약 300명으로 축소
가짜 팩트체크	러시아 주도 '대안' 팩트체크 협회 Global Fact-Checking Network(GFCN) 출범(2024.11)	IFCN 대항 기구. '팩트체크' 개념 자체의 탈취 시도. 타스(TASS)·아노 다이얼로그(ANO Dialog) 공동 창립. 세르비아·헝가리 등 확산
무장세력 급습	아프가니스탄 아프간팩트 (2024.1)	탈레반 정보기관의 사무실 급습 + 열흘 뒤 디도스 공격
물리적 공격	크로아티아 팩토그래프(2024.7)	기자 이틀 연속 폭행, 자택 침입. IFCN 공식 규탄
법적 탄압	세르비아 이스티노메르 운영 단체 (2025.2)	경찰의 본부 급습. 서명기관 탄압의 공식화
비자·이민 규제	미국 국무부 비자 거부 지침 (2025.12~)	팩트체크 종사자 비자 거부. IFCN이 연방소송에 의견서 제출로 대응
디지털 공격	코소보(2023.12), 네덜란드 (2025.11)	페이스북 집단 신고 공격, 다보스포럼 사칭 표적 피싱
재정 압박	메타 팩트체크 프로그램 종료 (2025.1)	76% 기관이 재정 취약 또는 위기

표에 등장하는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다. 몇 개의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한 팩트체커의 죽음

2026년 6월 1일 IFCN은 레바논의 팩트체킹 기관 사와브(Sawab)⁶⁾ 팀원 두 명의 가족이 분쟁 중 부상을 당했다고 알렸다. 인도·필리핀·콜롬비아의 동료들이 즉시 연대의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6월 16일 그중 한 명인 알라 살만(Alaa Salman)이 자택 폭격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IFCN 디렉터 앤지 홀란은 “우리는 알라를 애도하며 그의 가족, 사와브의 동료들과 함께 슬퍼한다”고 썼고, 필자를 비롯해 스페인·인도·조지아·필리핀의 팩트체커들과 글로벌팩트 개최 파트너까지 줄지어 애도를 표했다. 글로벌팩트 2026 개막 전날 도착한 이 부고는 분쟁 지역의 팩트체커가 ‘직업적 위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협에 노출돼 있음을 아프게 증언한다.

‘가짜 팩트체킹’이라는 신종 무기

2024년 11월 러시아는 IFCN에 맞서는 ‘대안’ 국제 팩트체킹 협회를 출범시켰다. 정식 명칭은 ‘글로벌팩트체킹네트워크(Global Fact-Checking Network, GFCN)’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와 단어 하나 차이다. 2024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가짜뉴스에 관한 대화 2.0’이라는 포럼에서 처음 공개됐고, 2025년 4월 웹사이트를 열었다. 국영통신사 타스(TASS)와 크렘린 계열 비영리단체 아노 다이알로그(ANO Dialog), 뉴미디어스쿨이 공동 창립했다. 타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럽 뉴스통신사연합에서 퇴출됐고, 아노 다이알로그는 서방 언론사를 사칭하는 ‘도플갱어(Doppelgänger)’ 공작으로 EU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말 그대로 팩트체킹의 이름과 형식을 빌린 선전 기구다. 이메일함에는 즉각 연쇄 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의 팩트체커가 창립 방송을 직접 시청한 내용을 가장 먼저 공유했고 리투아니아의 베테랑 팩트체커가 “이것은 크렘린이 팩트체킹이 자신들의 허위정보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대응은 두 가지다. 팩트체커를 회유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으로 묘사하거나. 이 협회는 두 번째 전술의 연장이다”라고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스페인 말디타(Maldita)⁷⁾의 공동창립자는 “팩트체킹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것을 조작하려는 것이다”라고 핵심 역설을 짚었다.

6) <https://www.sawablb.com/>

세르비아에서는 이미 친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가짜 팩트체킹 사이트가 확인됐고, 헝가리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지적됐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율된 전략이라는 결론이었다.

2026년에는 벨라루스 정보 공간에서 ‘팩트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선전의 도구로 전용되는지를 추적한 연구까지 나왔다.⁸⁾ ‘팩트체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빼앗으려는 이 운동의 언어적 기반을 겨냥한 공격이다.

선거를 노리는 공작, 국경을 넘는 추적

2025년 1월, 독일 조기 총선을 4주 앞두고 독일의 탐사매체 코렉티브(CORRECTIV)⁹⁾가 ‘스톱-1516’¹⁰⁾이라 불리는 러시아 영향력 공작이 100개의 허위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는 수사 결과¹¹⁾를 이메일함에 공유했다. 가짜 내부고발자의 답 페이크 영상, 아프리카 신문에 돈을 주고 실은 광고성 기사, 허위 웹사이트를 조합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었다.

바로 다음 날 프랑스 AFP가 페이스북과 신생 소셜미디어에서 계속되는 친러시아 위장 사이트 작전에 관한 자사 기사로 후속 보고를 이었다. 독일 선거를 겨냥한 공작을 독일과 프랑스의 기관이 하루 간격으로 서로 연결해 낸 것으로 이 공작이 한 나라가 아닌 유럽 전역을 겨냥한 단일 캠페인임이 드러났다.

급습, 폭행, 해킹

팩트체커를 겨냥한 물리적·법적 공격은 한두 건이 아니다. 2024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보기관이 팩트체킹 기관 사무실을 급습하며 온라인 활동 중단을 경고했고, 열흘 뒤에는 그 기관의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IFCN 디렉터가 즉각 보안 조언을 제공했고, 폴란드와 인도의 동료들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7) <https://maldita.es/>

8) How the Belarusian media field talks about “fact checking”, <https://factcheck.lt/eng/>, 2026.04.02, https://factcheck.lt/eng/news/international_factchecking_day_2026/

9) <https://correctiv.org/>

10)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허위정보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실제 배우를 고용한 연출 영상, AI 생성 인물(딥페이크), 가짜 언론 및 SNS 계정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선거, 국제정치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1) <https://correctiv.org/en/fact-checking-en/2025/01/24/disinformation-operation-russian-meddling-in-german-election-campaign-exposed/>

과 구글의 무료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 연결까지 연쇄적으로 지원했다.

같은 해 7월 크로아티아에서는 팩트체킹 기자가 자택 침입을 포함해 이틀 연속 폭행당했고, 2025년 2월 세르비아에서는 팩트체킹 기관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본부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코소보에서는 조직적인 ‘집단 신고’로 팩트체킹 기관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제한됐고, 네덜란드에서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사칭한 표적 피싱 이메일이 팩트체커들에게 날아들었다.

2025년 봄에는 아프리카 팩트체킹의 개척자가 “올해 들어 너무 많은 동료들이 위협·협박·폭력을 경험했다”며 커뮤니티 차원의 위협 실태 집계에 나서기도 했다. 위협이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국가발 위협

뜻밖의 위협은 미국에서 왔다. 2025년 12월 미 국무부가 전 세계 공관에 팩트체킹·허위정보 대응 분야 종사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¹²⁾가 이메일함에 공유되자 커뮤니티는 격앙됐다. 프랑스의 유명 팩트체커는 “이제 우리를 위협인물 취급인가”라고 썼고, 콩고의 팩트체커는 “외국 팩트체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IFCN은 두 차례 공식 성명¹³⁾에 이어 2026년 5월 이 지침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연방법원 소송에 의견서를 내고 합류했다.¹⁴⁾ 2024년 글로벌팩트에서 세계 팩트체커들이 선언한 ‘팩트체킹은 검열이 아니라 표현 자유의 실천(Censorship removes information. Fact-checking adds it)’이라는 명제¹⁵⁾가 2년 만에 미국 연방법정의 법적 논거로 진화한 것이다.

12) <https://www.npr.org/2025/12/04/nx-s1-5633444/trump-content-moderation-visas-censorship>

13) <https://www.poynter.org/news-release/2025/ifcn-statement-on-u-s-visa-restrictions-targeting-fact-checkers/>. <https://factcheckhub.com/ifcn-condemns-us-visa-bans-on-fact-checkers-others/>

14) <https://www.poynter.org/ethics-trust/2026/coalition-for-independent-technolog>

15)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4/worlds-fact-checkers-issue-sarajevo-statement-supporting-fact-checking-as-free-speech-not-censorship-at-global-fact-11-conference/>, 이 성명은 130개국 80개 기관이 서명했다. 배경에는 2020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측이 ‘팩트체킹은 검열’이라며 PolitiFact·Science Feedback·포인터연구소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다. 소송은 기각됐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변화의 의미

팩트체커는 이제 검증자가 아니라 공격 대상이다. 공격의 주체는 무장세력에서 권위주의 정권,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까지 확장됐고, 방식은 물리적 폭력에서 법적 탄압, '팩트체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탈취하려는 언어 전쟁으로 진화했다. 위협이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변화 ② 플랫폼 시대의 종언 — 9년 협력의 끝

지난 10년 글로벌 팩트체킹의 성장을 떠받친 한 축은 거대 플랫폼과의 협력이었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과 계약을 맺고 팩트체커가 '거짓'으로 판정한 게시물의 확산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당한 돈을 지불해 왔다. 많은 팩트체킹 기관에게 이 방식은 최대 수입원이었다. 이 관계가 분석 기간 동안 갈등 → 축소 → 단절의 궤적을 그렸다.

갈등은 오래전부터 누적돼 있었다. 일례로 2025년 7월에는 전화 사기 피해를 '경고'하는 러시아 매체 Provereno.media의 팩트체크 기사¹⁶⁾가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허위정보 딱지를 받는 웃지 못할 사건이 보고됐다. 어떤 팩트체크 기사가 근거인 지 링크조차 없었다. 알고리즘이 기사 안의 허위 주장을 탐지하고도 그것이 '반박하는 기사'라는 맥락을 읽지 못한 것이다.

IFCN 디렉터 앤지 홀란은 "알고리즘이 기사 속 허위정보 주장을 탐지하지만 그것이 반박 콘텐츠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 역설"이라 진단했고, 또 다른 한 팩트체커는 "실제로 검토한 적 없는 게시물에 라벨을 붙여 놓고, 그로 인한 비난은 팩트체커가 뒤집어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리스팩트체크(Greece Fact Check)의 한 팩트체커는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21조 하에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은 유럽 이의심사 센터(Appeals Centre Europe)를 통해 무료로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실용적 구제책을 소개했다.

사실 플랫폼의 이탈 조짐은 그전부터 있었다. 2023년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X)를 떠나는 흐름이 일자 미국의 한 팩트체커가 신생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Bluesky)¹⁷⁾에 팩트체킹 기관 계정 모음을 만들었고 하루 만에 40개 넘는 기관이 합류했다. 팩트체커 스스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축소의 결정타는 2025년 1월이었다. 메타가 미국에서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용자가 서로 게시물에 주석을 다는 방식인 '커뮤니티 노트'로 전환한다고 발

16) https://www.newsru.co.il/community/29jun2025/okez_rusi500.html

17) <https://bsky.app/>

표한 날 e메일함은 폭발했다. 인도·스웨덴·파키스탄·영국·리투아니아의 팩트체커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했다. 스웨덴의 팩트체커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거짓 정보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달 뒤 스페인 말디타는 흥미로운 반박을 내놔다. 한 해 동안 X에 달린 커뮤니티 노트 117만 5,837건을 전수 분석해 보니 노트에 인용된 근거의 상당 부분이 팩트체커들의 기사였다는 것이다.¹⁸⁾ 팩트체커는 X 자체·위키피디아에 이어 3번째로 많이 인용된 출처였다. 27건 중 1건 꼴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또는 유럽팩트체킹기준네트워크 인증 기관의 기사가 인용됐고, 팩트체커를 인용한 노트는 일반 노트보다 평균 90분 먼저 게시됐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팩트체커는 커뮤니티 노트로 대체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홍콩의 한 연구자는 “이것이 플랫폼이 팩트체커의 노동을 보상 없이 가져다 쓰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각주를 달았다.

그리고 이어진 단절. 2026년 6월 빌뉴스에서 열린 글로벌팩트 2026에는 미국 대형 플랫폼이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2017년 마드리드 총회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대거 참여하며 시작된 협력이 9년 만에 공식적으로 끊긴 것이다. 참가 규모도 약 300명으로 줄었다. 한때 1000명 안팎이 모이던 행사였다. 유럽의 한 연구 네트워크는 이 축소가 “메타와 알파벳(구글)이 팩트체킹을 축소한 이후 다수의 전문 뉴스룸이 문을 닫은” 직접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구글의 팩트체크 검색 도구가 새 기능을 내놓을 때마다 이 e메일함에서 격찬이 오갔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국면 전환이다.

이 변화의 의미

플랫폼 의존 모델의 시대가 끝났다. 갈등(알고리즘 오판) → 축소(메타 종료) → 단절(글로벌 팩트 불참)의 궤적은 팩트체킹이 플랫폼의 '협력 파트너' 지위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말디타의 분석대로 팩트체커의 콘텐츠는 여전히 소비되지만, 그 노동에 대한 보상 구조는 사라졌다. 수익 모델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18) https://files.maldita.es/uploads/2025/02/maldita_informe_community_notes_2024.pdf

변화 ③ AI의 도래 —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적이자 도구

분석 기간은 생성형 AI가 팩트체킹의 주변 의제에서 핵심 의제로 이동한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이메일함 기록을 연도별로 따라가면 의미있는 진화과정을 볼 수 있다.

[표 3] AI·딥페이크 의제의 연도별 진화(e메일 아카이브 기준)

연도	주요 흐름
2022	AI가 명시적 의제로 부상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작 영상에 역이미지 검색·위치 추적 등 전통 검증 기법으로 대응
2023	3월: 인프라 구축의 해. 위트니스 딥페이크 긴급대응팀 출범 / 10월: 가자 전쟁 AI 허위정보 폭발과 콜롬비아 선거의 첫 AI 가짜 음성 경보 / 대학과 AI 팩트체킹 공동 연구 시작
2024	2월: 실전 적용과 논쟁의 해. 회의 내 AI 도우미 허용을 둘러싼 첫 거버넌스 토론 / 9월: 딥페이크 규제 여론조사 '라벨 의무화 찬성 84%' / 10~11월: 조지아 선거 음성 포렌식 국제 공조
2025	6월: 위험의 '국가화'. 챗GPT가 러시아 선전 콘텐츠를 출처로 반환하는 문제 보고 / 6월: 팩트체킹 데이터 기반 챗봇 GFC 공식 출범 / 8~10월: 몰도바 대통령 딥페이크를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인용 / 12월: 틱톡 AI 아동 착취 방지 폭로
2026	6월: 공인과 실행의 해. 'AI 폰지사기' 잠입 수사가 글로벌팩트 최고상 수상, 딥페이크 음란물 네트워크 폭로가 협업상 수상(6월) / 7월: 검증 데이터를 대중용 AI 판별 퀴즈로 전환한 테이트의 실험

2022년 당시 AI는 아직 명시적 의제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작 영상에 팩트체커들은 역이미지 검색과 위치 추적 같은 전통적 검증 기법으로 대응했다.

2023년에는 기초 인프라가 만들어졌다. 국제 인권단체 위트니스(WITNESS)¹⁹⁾가 AI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인 딥페이크 의심 콘텐츠를 분석해 주는 '긴급대응팀'을 팩트체커 대상 무료 서비스로 출범시켰다. 선거·분쟁·인권 맥락의 의심 콘텐츠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신속히 회신해 주는 이 서비스는 딥페이크 대응 인프라의 공식적 출발점이었다.²⁰⁾

같은 해에는 팩트체커들이 검증 과정에서 참혹한 이미지에 반복 노출되는 정신적 피해를 AI로 줄이려는 연구, 아프리카 최초의 딥페이크 대응 교육도 이 이메일함을 통해 공유됐다. 그리고 10월, 콜롬비아 지방선거에서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짜 음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아카이브 최초의 선거 AI 음성 경보가 발신됐다. 이 예측은 정확했다.

19) <https://www.witness.org/>

20) 이 서비스는 이후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더 재공급됐다. 3년간 세 번의 홍보가 필요했다는 것은 좋은 인프라가 만들어져도 충분히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4년은 실전과 논쟁의 해였다. 위에서 소개한 조지아 선거 음성 포렌식 협력이 2024년에 있었고, 파키스탄의 팩트체커는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가짜 음성을 검증해 공유했다. 논쟁도 무르익었다. 연초에는 화상회의에 AI 기록 도우미를 들여도 되는지를 놓고 커뮤니티 최초의 ‘AI 거버넌스’ 토론이 벌어졌는데 한 네덜란드 전문가는 “허용이나 금지냐라는 이분법 자체가 문제. 회의록 작성 도구와 감시용 AI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잘못”이라고 프레임 자체를 비판했다.

그해 가을에는 미국의 한 연구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AI로 만든 디지털 복제물의 무단 사용 금지와 AI 콘텐츠 라벨 의무화에 각각 84%가 찬성한다는 압도적 수치였다. 그러자 한 팩트체커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왜 특별히 문제인가? AI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묘사하는 콘텐츠라면 라벨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규제의 초점이 ‘기술 방식’이 아니라 ‘진실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2025년 12월에는 스페인 말디타가 틱톡에서 AI로 만든 아동 착취성 콘텐츠가 신고에도 방치되는 실태를 폭로했다.²¹⁾ 조사 대상 20개 계정이 55만 3,180명의 팔로워와 570만 개의 ‘좋아요’를 모았고, 5,200개 넘는 AI 생성 영상을 게시한 상태였다. 신고한 15개 계정 중 14개에 대해 틱톡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의신청을 하자 매년 ‘정확히 30분 뒤’ 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가장 심각한 계정 15개를 직접 신고했지만 틱톡이 전부 그대로 뒀다는 이 사건은 AI 착취물을 걸러내야 할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오히려 방치자가 되는 역설을 드러냈다.

2025년이 되자 위험은 ‘국가화’됐다. 조지아의 팩트체커들이 몰도바 대선을 겨냥한 몰도바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두 건을 찾아냈는데 그중 하나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인 양 인용했다. 국가가 딥페이크를 외교 무기로 쓴 사례다.

같은 해 리투아니아의 팩트체커는 또 다른 종류의 경보를 울렸다. 헝가리 총리의 연설을 팩트체킹하는 과정에서 AI 전사·번역 도구는 유용했지만 챗GPT에 자료 출처를 요청하자 러시아 허위정보 조직이 대량 생산한 콘텐츠가 ‘출처’로 반환되더라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이 시대 팩트체커의 딜레마를 압축한다. “AI가 우리 작업을 가속시키는 동안 AI는 우리가 폭로하려는 바로 그 위험을 함께 운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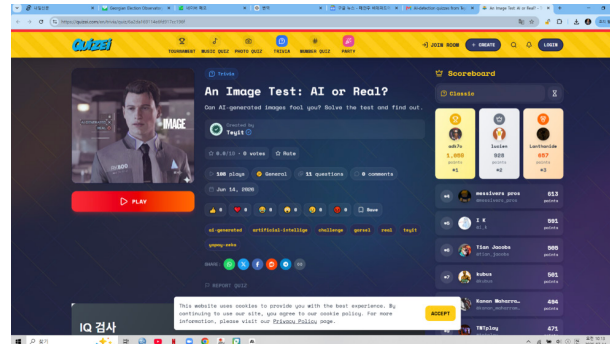
2026년 AI 대응은 주된 흐름이 됐다. 이를 웅변하듯 올해 글로벌팩트 최고상은 나이지리아 탐사매체에 돌아갔다. 딥페이크 영상과 복제 음성, 조작된 신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AI 폰지사기’를 잠입 취재로 폭로한 수사였다. 협업상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네트워크를 파헤친 덴마크·국제 공조팀이 받았다. AI 허위정보 대응이 정치 검증을 넘어 금융 범죄·성착취 수사의 영역으로 확장됐음을 업계 스스로 공인한 셈이다.

그리고 콘퍼런스가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테이트의 AI 판별 퀴즈는 이 궤적의 마지막

21) <https://maldita.es/investigaciones/20251211/predators-tiktok-goldmine-pedophiles/>

막 조각이다. 실제 검증 사례로 구성돼 조작된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련되지 않은 눈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 퀴즈를 공유하며 테이트는 다른 나라 기관들이 자국어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구축 방법까지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문가의 검증 역량을 대중의 리터러시로 번역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 1] 테이트의 AI 판별 퀴즈 사이트



* 출처: <https://quizei.com>

다만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테이트의 6개국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허위정보에서 여전히 우세한 것은 AI가 아니라 ‘구식 수법’이었다. 오래된 영상에 새 자막을 붙여 다른 사건인 양 유통하는 재맥락화가 63.8%로, AI 활용(26.7%)의 두 배가 넘었다.²²⁾

이 보고서의 진짜 무서운 발견은 따로 있다. AI 합성 콘텐츠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진짜 영상’조차 의심하게 된다는 것(신뢰의 부식), 그리고 조작 콘텐츠의 1차 목표가 이제 ‘설득’이 아니라 ‘피로’, 시청자가 진위 판단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변화의 의미

AI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도구가 됐다. 2023년의 경보가 2024년의 실전 공조로, 2025년의 국가화로, 2026년의 수사 대상('AI 폰지사기')이자 교육 소재(판별 퀴즈)로 진화한 4년의 궤적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도전은 인식의 영역에서 왔다. 허위정보의 목표가 '설득'에서 '피로'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사실을 알면 판단이 바뀐다"는 팩트체크의 근본 전제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²²⁾ <https://en.teyit.org/teyitpedia/the-anatomy-of-misinformation-in-the-us-israel-iran-war>

변화 ④ 76%가 흔들린다 — 재정 위기와 지속가능성

재정 문제는 e메일함 표면에 자주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 기간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다. e메일함에 기록된 IFCN의 지원금 지급 이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지원이 꾸준히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조금 확대의 이면에는 악화되는 재정 현실이 있다.

[표 4] IFCN 주요 보조금 지급 이력(e메일 아카이브 기준)

시기	프로그램	규모
2023.6	IFCN 보조금	34개국 35개 기관에 총 97만 5,000달러 (우크라이나·이집트·과테말라·라이베리아·네팔 등)
2024.10	GROW 2024	19개국 20개 기관에 각 최대 5만 달러
2025.1	SUSTAIN	25개 기관에 각 3만 달러

IFCN이 올해 4월 발표한 71개국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수치는 역설적이다. 조사 대상 기관의 62%는 2025년에 독자가 늘었다. 팩트체킹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76%는 자신들의 재정이 ‘취약하거나 위기’라고 답했다. 메타의 프로그램 종료로 팩트체킹 기관 수입에서 메타가 차지하던 비중은 45.5%에서 34.3%로 급감했고, 그 자리는 재단 보조금(46.2%)으로 대체됐다. 올해 글로벌팩트에서는 13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 참가자 여행 지원이 중단됐다. 지난 4월 3일 필리핀의 베테랑 팩트체킹 언론사 베라파일스(VERA Files)가 공유한 칼럼 제목이 이 현실을 압축한다. “글로벌 팩트체커들, 재정 삭감에도 계속 싸우다.”²³⁾

이 같은 재정 위기에 대한 커뮤니티의 구조적 대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GFC(Global Fact Check chatbot)라는 실험이다. 2024년 사라예보 총회에서 현장 공개 모집으로 시작해 2025년 리우 총회에서 공식 출범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의 검증 데이터를 모아 일반 대중이 챗봇으로 물어볼 수 있게 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만들어 참여 기관에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던 모델에서 자생적 수익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2025년 말 38개 창립 기관이 확정됐고 2026년 신규 신청이 예정돼 있다.

23) <https://verafiles.org/articles/global-fact-checkers-soldier-on-despite-funding-cuts>

이 변화의 의미

지속가능성이 생태계의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수요(독자 62% 증가)와 재정(76% 취약·위기)의 역설적 괴리는 문제가 팩트체킹의 효용이 아니라 수익 구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GFC는 플랫폼의 돈에 의존하던 모델에서 자기 데이터로 자기 수익을 만드는 모델로의 전환 실험 — 앞의 세 변화에 대한 커뮤니티의 종합 응답이다.

04 그룹에도 생태계는 왜 유지되는가

네 겹의 변화는 하나같이 위기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이 네트워크는 무너지지 않았다. 4년 5개월치 이메일을 읽으며 거듭 확인한 것은 이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힘이 제도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첫째는 반응 속도다. 가자 영상 검증은 당일 5개국, 음성 포렌식 요청은 33분, 다만 관련 영상의 위치 확인은 24시간 안에 해결됐다. 어떤 단일 기관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반응 속도, 이것이 커뮤니티의 실질적 가치다.

둘째는 사람이다. 정보 흐름을 이끄는 것은 소수의 능동적 발신자들이다. 러시아 허위정보 공작 분석을 도맡다시피 해 온 리투아니아의 팩트체커²⁴⁾와 대형 탐사 결과를 아낌없이 공유해 온 스페인 말디타, 공동 조사와 대중용 도구를 잇달아 내놓은 튀르키예 테이트 같은 이들이 허브를 형성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다. 올해 글로벌팩트 어워드 심사위원 명단과 GFC 거버넌스 위원 명단을 보면 바로 이들 능동적 발신자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콩고에서 에볼라 허위정보 경보를 발신했던 팩트체커도, 전쟁 허위정보 공동 보고서와 AI 퀴즈를 주도한 테이트의 담당자도 올해 어워드 심사위원이 됐다. 커뮤니티에서 지위는 요청이 아니라 기여로 쌓인다는 뜻이다.

셋째는 인간적 유대다. 2023년 IFCN 직원의 아내가 뉴욕 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필자를 포함 수십 개국에서 몇 분 만에 반응했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때는 대만·인도·조지아의 동료들이 현지 팀원들의 안전부터 물었다. 애도와 검증 요청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채널이 단순한 정보 교환 목록이 아닌 이유다.

24) 리투아니아 FactCheck.LT의 미하일 도로셰비치(Mikhail Doroshevich)를 지칭한다.

심지어 언어 문제조차 유대의 소재가 된다. 2023년 웨스트민스터대 방문 연구원이자 아프리카체크 설립자인 피터 쿤리프(Peter Cunliffe-Jones)가 “misinformation(오인에 의한 허위정보)과 disinformation(의도적 허위정보)을 여러분 나라 말로는 어떻게 구분해 번역하느냐”고 묻자 일본 팩트체크 센터의 후루타 다이ске(古田大輔) 편집장은 “일본어에서는 誤情報(오정보/misinformation)와 偽情報(위정보/disinformation)를 구분한다. 情報은 정보, 誤는 오류, 偽는 의도적 거짓을 의미한다”라고 상세하게 답했다. 또 마케도니아 트루스미터(Truthmeter)의 블라디미르(Vladimir)는 “마케도니아어에서 disinformation(дезинформација)이라는 단어는 의도성을 함축하지 않아서 misinformation과 혼용된다. 이것이 뉴스룸에서 실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피터 쿤리프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답변을 받아 일일이 답하기 어렵다. 결론은 언어마다 이 개념의 번역이 상이하며, 이것이 팩트체크 훈련과 기준 수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올해 글로벌팩트 개막일인 6월 17일부터 7월 초까지 약 3주간 이메일함에는 새 글이 없었다. 연중 가장 큰 대면 만남이 온라인 채널의 기능을 잠시 대체한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침묵을 깬 것은 7월 6일 테이트의 AI 판별 퀴즈 공유였다. 공동 보고서(6월 11일) →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애도(6월 16일) → 빌뉴스에서의 만남(6월 17~19일) → 새 도구의 공유(7월 6일). 분석과 애도와 만남과 실행이 한 달 안에 순환하는 이 리듬이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

속도와 사람과 유대. 이 세 가지가 위기 속에서도 생태계를 지탱한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기여'라는 하나의 행위로 수렴한다. 분석을 공유하고, 요청에 답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리더가 된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지도 위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05 서울의 영광, 그 후 — 한국이 사라진 자리

2023년 여름 글로벌팩트 10이 서울에서 열렸다. 세계 팩트체커들이 서울에 모여 각국의 경험을 나눴고,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개최였으며, 한국 팩트체킹의 국제적 존재감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글로벌팩트 10 조직위원으로 참여했던 필자 역시 그 현장에서 한국 팩트체킹이 글로벌 무대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감격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르면서 한국 팩트체크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모델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던 팩트체크넷이 영구 폐쇄됐고,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 성장을 견인했던 SNU팩트체크센터도 플랫폼을 닫고 활동을 중단했다.

4년 5개월치 아카이브에서도 한국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e메일함에서 한국이 ‘능동적 발신자’로 등장한 것은 연대 메시지 몇 건이 전부다. 한국의 검증 사례를 공유하거나, 도구를 소개하거나, 공동 조사를 제안한 기록은 없다. 서울 총회의 자산, 그때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제적 인지도 등이 후속 기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은 있겠지만 외부 환경만 탓하기에는 아카이브가 보여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이 커뮤니티에서의 지위는 기여로 쌓인다. 리투아니아의 분석 공유가, 스페인의 탐사 배포가, 튀르키예의 도구 공개가 그들을 허브로 만들었다.

재참여 경로는 지금도 열려 있다. 첫째, GFC의 2026년 신규 회원 신청이다. 둘째, 이 e메일링 리스트에 한국의 검증 사례와 연구를 영어로 공유하는 능동적인 발신으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차기 글로벌팩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세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2014년 런던에서 48명으로 시작된 이 네트워크의 첫 자리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역사가 다시 그 안에 있어야 할 이유다.

[그림 2] 2014년 제1회 글로벌팩트에 참가한 48명의 팩트체커들



06 맺으며 — 축소 속의 지속

4년 5개월의 기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위기는 네 겹으로 깊어졌지만 연대는 멈추지 않았다. 네 겹의 위기란 앞에서 본 네 가지 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팩트체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생명의 위기(공격받는 검증자), 플랫폼 의존 모델이 무너진 재정 위기, ‘팩트체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빼앗으려는 제도적 공격의 조직화, 그리고 허위정보의 목표가 설득에서 ‘피로’로 진화하며 팩트체킹의 근본 전제가 흔들리는 인식의 위기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것들이 있다. 축소 속에서도 글로벌팩트는 개최되었고, AI 사기 조사와 딥페이크 네트워크 폭로라는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에 상이 주어졌으며, 플랫폼 없이 살아남기 위한 자생적 실험이 38개 기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메일 함에는 오늘도 검증 요청과 응답, 경보와 애도가 오가고 콘퍼런스가 끝난 지 2주 만에 새로운 도구까지 공유됐다.

‘축소 속의 지속’ 이것이 2026년 글로벌 팩트체킹의 정확한 상태다. 그리고 그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지구 반대편 동료의 요청에 33분 만에 답장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팩트체커들과 언론이 다시 서야 할 자리도 바로 그 답장의 자리라고 필자는 믿는다.

참고자료

임주현, 한동오, 송영훈, 구본권, 정재철, 금준경, & 이성규. (2020).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지식플랫폼.

정재철. (2021). 슬기로운 팩트체크. 무블출판사.

정재철. (2025). 소중한 사람이 음모론에 빠졌습니다. 원더박스.

IFCN, <State of the Fact-Checkers Report 2025>, Poynter/IFCN, 2026.03, <https://www.poynter.org/wp-content/uploads/2026/03/2026-State-of-Fact-Checkers-4.pdf>

Poynter/IFCN, <Fact-checkers from Denmark, Nigeria, Poland, Spain win GlobalFact awards>, Poynter/IFCN, 2026.06.22,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6/globalfact-awards-winners-vilnius/>

Faktabaari, <Global Fact Summit: Countering Authoritarian Influence With Quality Journalism>, NORDIS, 2026.06, <https://www.nordishub.eu/global-fact-summit-countering-authoritarian-influence-with-quality-journalism/>

Louis Jacobson., <Trump visa policy chills free speech, lawyer for journalists, researchers tells federal judge>, PolitiFact, 2026.5.13, <https://www.politifact.com/article/2026/may/13/visa-misinformation-fact-checking-first-amendment/>

Angie Drobic Holan, <World's fact-checkers issue 'Sarajevo statement' supporting fact-checking as free speech, not censorship, at GlobalFact 11 conference>, Poynter/IFCN, 2024.6.26,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4/worlds-fact-checkers-issue-sarajevo-statement-supporting-fact-checking-as-free-speech-not-censorship-at-globalfact-11-conference/>

IFCN, <Fact-Checking Community (Public List)>, Google Groups, 2022.2.12.~2026.7.8, <https://groups.google.com/a/ifcn.org/g/public/about>

Wikipedia, <Global Fact-Checking Network>, 2026.7.13., https://en.wikipedia.org/wiki/Global_Fact-Checking_Network

RSF, <Russia: fact-checking is the Kremlin's latest propaganda tool>, Reporters Without Borders(RSF), 2025.06.26, <https://rsf.org/en/russia-fact-checking-kremlins-latest-propaganda-tool>

EDMO, <Putin's new plan to undermine fact-checking>,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EDMO), 2024.11.29, <https://edmo.eu/publications/putins-new-plan-to-undermine-fact-checking/>

Fundación Maldita.es, <Faster, Trusted, and More Useful: The Impact of Fact-Checkers in X's Community Notes>, Maldita.es, 2025.02, https://files.maldita.es/maldita/uploads/2025/02/maldita_informe_community_notes_2024.pdf

Poynter/IFCN, <Fact-checkers are among the top sources for X's Community Notes>, Poynter/IFCN, 2025.2.20, <https://www.poynter.org/ifcn/2025/fact-checkers-contribute-improve-community-notes-x/>

Maldita.es, <Predators on TikTok: a goldmine for pedophiles>, Maldita.es, 2025.12.11, <https://maldita.es/investigaciones/20251211/predators-tiktok-goldmine-pedophiles/>

Clare Duffy, <Videos of sexually suggestive, AI-generated children are racking up millions of likes on TikTok, study finds>, CNN Business, 2025.12.11, <https://www.cnn.com/2025/12/11/tech/tiktok-ai-videos-children-report>

Zeynep Şahin, <Quiz: How good are you at spotting AI-generated images?>, Teyit, 2024.04.25, <https://en.teyit.org/teyitpedia/how-good-are-you-at-spotting-ai-generated-images>

Ma. Rizza Francisco, <Global fact-checkers soldier on despite funding cuts>, Vera Files, 2026.04.03, <https://verafiles.org/articles/global-fact-checkers-soldier-on-despite-funding-cuts>

PART III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 집중 취재

*가짜뉴스의 최전선, 대만은 어떻게 진실을 지켜냈나
시민단체와 국민 메신저가 일궈낸 협력적 안전망*

이상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팀장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반면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맥을 이어오던 팩트체크 단체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다. 현재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국내 기관은 JTBC와 단비뉴스 둘뿐이다. 반면 이웃 나라 대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팩트체크 강국’으로 부상했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 팩트체크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회 전반의 검증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을까. 대만 현지 취재와 주요 단체 방문을 통해, 한국 언론이 주목해야 할 대만식 팩트체크 모델의 생생한 현황과 작동 원리를 짚어본다.

01 위기가 일깨운 방어선, 가짜뉴스 최전선 대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노출된 국가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V-Dem 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은 11년 연속 ‘해외로부터 가짜뉴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위를 기록했다(LY Corporation, 2025). 선거철이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발 인지전(Cognitive Warfare)과 딥페이크 영상이 대량 유포되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혹독한 위기가 대만을 팩트체크 강국으로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외부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위기의식이 생겨났다.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 주도의 팩트체크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싹텄다.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뼈대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시민 기술(Civic Tech) 기반의 협력’이 그 핵심이다. 대만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사회보다 국가의 정보 통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크다. 그 결과, 대만의 팩트체크는 민간 NGO와 해커 커뮤니티가 주도한다.

대만의 팩트체크 활동은 IT 기술과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LINE)’은 대중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확실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민 메신저를 통해 팩트체크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수의 시민이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덕분에 대만의 팩트체크 활동은 견고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대만민주실험실(Doublethink Lab)이 제작한 '인포데믹 플레이북' 웹사이트 화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쏟아진 허위정보와 정보 조작에 맞서 대만 시민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한 대화형 디지털 백서다.



* 출처: <https://infodemic.doublethinklab.org/>

02 각기 다른 무기로 연대하는 대만 팩트체크 삼총사

대만에는 이른바 ‘팩트체크 삼총사(Three fact-checking musketeers)’로 불리는 단체들이 있다. 바로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Taiwan FactCheck Center, TFC), 코팩츠(Cofacts), 그리고 마이고펜(MyGoPen)이다(Su & Li, 2023). 이들 단체들은 대만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들이다.

이 세 기관은 각기 다른 설립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각각 고유한 검증 방식을 무기로 삼고 있다. TFC는 엄격한 저널리즘 원칙을 바탕으로 중대한 공공 의제를 파헤친다. 코팩츠는 시민 기술(civic tech)과 자원봉사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고수한다. 마이고펜은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사기 피해를 막는 시민 밀착형 방어에 집중한다. 마치 계획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처럼 중복도 없다. 서로 오랜 기간 연대하며 대만의 고유한 정보 공간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협력적 안전망(collaborative safety net)’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다.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중심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2018년 3월 대만을 휩쓸었던 이른바 ‘휴지 사재기(위생지 대란)’ 가짜뉴스 파동을 계기로, 우질신문발전협회(優質新聞發展協會)¹⁾와 대만매체교육관찰기금회(台灣媒

1) <https://aqj.org.tw/>

體教育觀察基金會)²⁾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출범 당시 전임 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으로 성장했다. 대만 팩트체크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립 직후인 2018년 11월에는 중화권 및 동아시아 최초로 IFCN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 팩트체크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 세계 100여 명이 참여해 1만 건 이상의 정보를 검증한 글로벌 연대 프로젝트(#CoronaVirusFacts)³⁾에 핵심 멤버로 참여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 성명과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AI 생성 콘텐츠 식별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개발하여 미디어 업계 전반에 보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현재 취재 경험을 갖춘 기자, PD 출신 등 14명의 전문 팩트체커가 상근한다. 검증한 사안에 대해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리포트를 발행하는 엄격함을 고집한다. TFC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로부터 하루 200~300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한다. 하지만 쏟아지는 제보를 모두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정보의 전파 속도’, ‘사회 및 개인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기준 삼아 검증할 사안을 정한다.

사후 검증을 넘어 ‘예방 백신’을 놓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체적으로 ‘대만 사실검증학원(台灣事實查核學苑)’⁴⁾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한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팩트체크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자료들은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PPT나 동영상 형태가 많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구글(Google)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5개국 청년들이 참가하는 팩트체크 실전 대회 ‘젠 아시아 챌린지(GenAsia Challenge)’⁵⁾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2) <https://www.mediawatch.org.tw/>

3) <https://www.poynter.org/coronavirusfactsalliance/>

4) <https://school.tfc-taiwan.org.tw/>

5) <https://en.tfc-taiwan.org.tw/youth-fact-checkers-from-five-countries-compete-in-2025-genasia-challenge-japan-takes-top-prize/>

[그림 2]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공식 웹사이트 화면. 팩트체커 전문 만장일치 검증을 통과한 리포트를 발행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인프라 코팩츠

코팩츠(Cofacts)는 대만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소싱 형태로 운영 중인 팩트체크 플랫폼이다.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태동기인 2016년, 시민운동의 하나로 시작했다. 코팩츠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챗봇 형태로 설계됐다.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챗봇에 전달하면,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에 구축된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즉각 답변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루머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는 ‘인간-AI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그래서 코팩츠는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팩트체크 단체들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또한, 지역 정치나 소규모 사기 사건 등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일상적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팩츠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와 비슷하다. 누구나 사전 신원 인증 없이 에디터로 참여해 사실 확인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의심스러운 메시지에 여러 에디터가 각기 다른 관점의 답변을 달 수도 있다. 특히 ‘진실’과 ‘거짓’ 외에 ‘개인 의견 포함’이라는 독특한 분류 체계를 제공한다. 누구나 검토의견을 올릴 수 있는 개방성은 팩트체크의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코팩츠는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개된 팩트체크 결과들에 대해 일반 사용자들이 제시된 출처와 논리를 바탕으로 ‘도움됨(추천)’이나 ‘동의하지 않음/도움 안됨(비추천)’ 등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의 피드백에 따라 평가가 낮은 답변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밀려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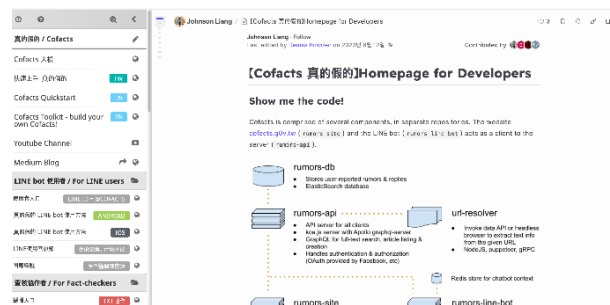
조직 운영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한다. 시민 기술 커뮤니티인 ‘g0v(gov-zero)’⁶⁾의 프로젝트로 출발했으며, 현재 코팩츠를 이끄는 핵심 자원봉사자는 12명에 불과하다. 하

6) <https://g0v.tw/intl/en/>

지만 이들과 연대하는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는 4,000명에 달한다. 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 광고나 정부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초기에는 공동 창업자가 사비로 서버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다. 2023년에 들어서야 합법적인 모금을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소액 기부와 시민 기술 지원금만으로 운영된다.

코팩츠의 중요한 역할은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코팩츠뿐만 아니라 TFC, 마이고펜 등 다른 팩트체크 기관이 검증한 데이터는 코팩츠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어 쌓인다. 그리고 플랫폼의 모든 코드와 데이터는 오픈소스와 개방형 API로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데이터는 라인에서 운영하는 공식 팩트체커 챗봇은 물론 '미위이(美玉姨)⁷⁾'와 같은 다른 대중적인 사기 방지 챗봇의 핵심 엔진으로 쓰이며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태국의 비영리 단체가 이 오픈소스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림 3] 코팩츠의 개방형 협업 플랫폼.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을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https://beta.hackfoldr.org/1yXwRjwFNfHNJibKENnLCAV5xB8jnUvEwY_oUq-KcETU/https%253A%252F%252Fhackmd.io%252Fs%252F1nfwTrgM

생활 밀착형 검증 서비스 마이고펜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핵심 축인 마이고펜(MyGoPen)은 2015년 설립됐다. 단체명은 대만어 발음으로 “더 이상 속이지 마라”는 뜻이다. 설립자인 예쯔양(葉子揚)이 장모 등 자신의 가족이 가짜 뉴스에 속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한 것이 출발점이다. 설립 초기부터 모바일 환경에 취약한 노년층의 사기 피해 예방이 주된 목표였다. 지금은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의학, 신종 피싱 사기 등 민생형 가짜 뉴스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2020년에는 IFCN 인증을 획득했다.

마이고펜은 시민단체가 아닌 영리 기업이다. 정확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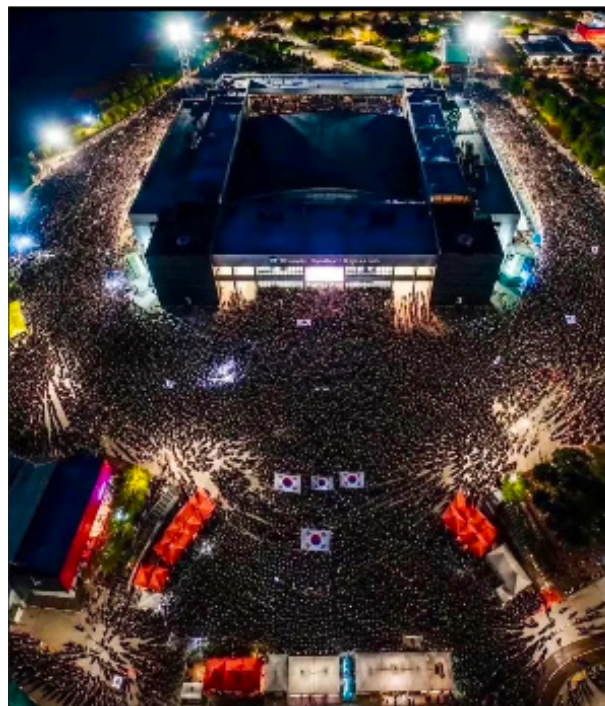
7) <https://page.line.me/dfz0050h>

(Meta), 구글(Google), 라인 등 대형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야후(Yahoo) 등과의 콘텐츠 제공 계약, 그리고 독자 기부를 통해 수익을 낸다. 조직 규모는 작다. 전체 풀타임 직원은 단 3명이다. 검증해야 할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소수의 인원이 프로젝트 단위로 추가되기도 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대만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한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미지, 영상을 제보하면 자동화된 챗봇이 일차로 진위를 알려준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루머는 상근 전담 인력이 직접 개입해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시민 생활 밀착형 검증 서비스다.

정확한 진위 판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수사 기법을 실무에 적용한다. 구글 이미지나 안덱스(Yandex)⁸⁾를 활용해 이미지 역검색을 진행한다. 동영상은 오픈소스 도구인 인비드(InVID)⁹⁾를 통해 프레임을 분할하여 조작 여부를 추적한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은 현직 의사나 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교차 검증한다.

[그림 4] 마이고펜이 최근 검증한 한국 관련 허위조작 정보 예시. 한국의 선거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올림픽 체조경기장 주변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AI 생성 이미지



* 출처: <https://www.mygopen.com/2026/06/SKOlympic.html>

8) <https://yandex.com/images>
9) <https://www.invid-project.eu/>

마이고펜 역시 대만의 다른 팩트체크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마이고펜이 생산한 양질의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만 고여있지 않다. 이들은 코팩츠에 직접 에디터 자격으로 참여해 검증된 답변을 남긴다.

03 가짜뉴스 잡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실험

삼총사의 팩트체크 역량은 대만 국민 90%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을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 폐쇄형 메신저 단톡방이 허위정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만은 플랫폼과 시민사회가 손잡고 이를 기술적으로 극복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2019년 7월 공식 출범한 라인 메시지 팩트체커 채널은 2024년 말 기준 86만 명 이상의 공식 계정 가입자(친구)를 확보하고 있다. 코팩츠 등 파트너 기관들과 연동해 8만 7,000건 이상의 방대한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사용자들은 단톡방에서 받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라인 공식 팩트체커 계정이나 코팩츠, 마이고펜의 챗봇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대만 팩트체크 삼총사를 비롯한 민간 및 정부 기관과 연동되어 교차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짓, 사실, 부분적 사실 등의 판별 결과를 즉시 회신한다. 최근에는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을 통한 사진 속 텍스트 검증과 음성 인식(Speech-to-Text, STT) 기술까지 도입되었다. 녹음 파일 속 가짜뉴스도 잡아내고 있다.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는 루머를 사용자들이 챗봇을 통해 외부 검증망으로 직접 끌어내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대만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플랫폼 기업과 NGO 간의 비즈니스적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라인은 물론, 메타와 구글 역시 민간 팩트체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예산의 약 절반은 메타가, 30% 이상은 구글이 부담했다.

팩트체크 기관은 플랫폼으로부터 생존에 필수적인 운영 자금을 받는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은 팩트체크 단체들이 제공하는 검증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가짜뉴스 노출 순위를 낮추거나 경고 표시를 붙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아웃소싱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위한 투자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메타가 팩트체크 파트너십 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글로벌 빅테크 자본에 크게 의존해 온 대만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심각한 존립 위기와 함께 자립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림 5] 라인 메신저의 다양한 팩트체크 채널. 대만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라인(LINE) 메신저에는 다양한 팩트체크 채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채널을 통해 팩트체크 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 관련 행사 소개, 제보접수까지 가능하다.

왼쪽부터 라인 공식 팩트체커, TFC, 마이고펜의 팩트체크 채널



04 사후 수습을 넘어선 예방, 시민 모두가 디지털 탐정

대만 생태계가 돋보이는 또 다른 지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팩트체크의 핵심 연장선으로 본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유포된 후 바로잡는 사후 수습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시민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다.

핵심 무기는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오픈소스 정보)의 대중화다. OSINT는 위성 이미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개방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과거 군이나 정보기관, 탐사 보도 언론사에서만 활용하던 고급 기술이 대만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시민의 무기가 됐다. 대만 팩트체크 기관들은 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가짜 뉴스를 검증할 때 OSINT 전문가의 추적 결과나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를 실무에 적극 동원한다.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정보 검증 기술은 이제 대만에서는 대국민 필수 교양이 됐다.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는 OSINT 활용법, 구글 이미지 역검색, AI 딥페이크 판별법 등을 일반 대중과 교사,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한다.

OSINT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마이고펜은 중소도시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 ‘냉정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라(冷·確·查)’는 3단계 팩트체크 기법을 전파한다. 코팩츠는 십대와 노년층이 게임을 하듯 팩트체크를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연다.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는 15~24세 대상 팩트체크 대회인 젠 아시아 챌린지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대만 사회에서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검증하

는 것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와 국립대만대학교(國立臺灣大學)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팩트체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들의 자체 검증이 보편화되었다(Taiwan FactCheck Center, 2023). 더 나아가 시민 10명 중 8명(80.8%)은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지인들에게 경고하고, 41.8%는 검증된 진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Taiwan FactCheck Center, 2023). 최근 발표된 ‘2025년 가짜뉴스 대조사’에서도 대만 국민의 96.8%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시민들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정보 방어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Taiwan FactCheck Center, 2026).

[그림 6] 팩트체커들이 Mapillary, Bing Map, 유튜브 등 OSINT를 교차 활용해 미국 텍사스 시위로 둔갑한 영상이 실제로는 독일임을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교육자료



* 출처: <https://education.tfc-taiwan.org.tw/articles/10441>

[그림 7]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호작용형 게임 화면. 외계인이 지구인으로 위장해 퍼뜨린 가짜 뉴스를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查小喵)가 추리하며 검증한다.



* 출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ts7EJDW3t3qtu5-TIRLr1lrPrmTGHYjs2bxqparPIWghlQ/formResponse>

05 버랑 끝 자금난과 양극화, 대만이 마주한 한계

국제적 찬사를 받는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의 성과 이면에는 심각한 위기감도 엿보인다. 가장 큰 취약점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한계다. 대만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플랫폼 기업과 NGO 간의 비즈니스적 협력 구조에 철저히 의존해 왔다. 최근 이 거대한 자금줄이 끊길 조짐을 보이면서 생태계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2025년 초에 메타는 지금까지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해왔던 제3자 팩트체크(3PFC) 파트너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플랫폼 이용자들이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설명을 달 수 있게 하는 ‘커뮤니티 노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메타의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운영 자금 지원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되는데, 내년도 갱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메타의 지원이 끊기면 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는 대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6년 IFCN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State of the Fact-Checkers Report)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의 지원 축소 여파 등으로 인해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의 76%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IFCN, 2026). 글로벌 빅테크 자본에 크게 의존해 온 대만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이제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절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저비용으로 손쉽게 만들어지는 AI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 역시 대만 팩트체크 생태계가 직면한 버거운 문제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은 가짜뉴스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유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유튜브 등에서는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AI 콘텐츠 농장’ 채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노년층이 즐겨보는 건강이나 복지 정보로 구독자를 모아 신뢰를 쌓은 뒤, 어느 순간 대만 해협의 전쟁 공포나 정치적 혐오, 금융 붕괴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돌변해 본격적인 인지전을 수행한다.

가장 큰 위협은 조작의 정교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이다. 대만 민주실험실(Doublethink Lab) 등 전문가들은 AI로 생성된 허위정보 자체는 팩트체커들이 판별하기 어렵지 않지만, 막대한 물량 공세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를 은폐하고 한정된 인간 팩트체커의 방어선을 압도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경고한다(Doublethink Lab, 2024). 정교한 가짜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면 대중은 극심한 피로감에 지쳐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진실한 정보조차 “AI가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지치고, 정보 생태계는 혼탁해진다.

06 한국 생태계에 던지는 시사점

대만의 사례는 한국 팩트체크 생태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팩트체크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정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를 정파적 틀로만 접근하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놓치게 된다. 대만 역시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양극화된 사회다. 하지만 대만의 팩트체크 단체들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팩트체크를 특정 진영의 무기가 아니라, 정보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필수 방어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민관과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는 굳건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전 사회가 위기를 공감하는 시민 주도형 팩트체크 생태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팩트체크를 주로 저널리즘과 언론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기사 품질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존속은 물론 공동체 화합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다. 이제는 언론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대만처럼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입김이나 정치적 외압을 원천 차단하고 팩트체크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생적인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AI 시대의 기술 진화에 맞서 일상적 플랫폼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AI 기술의 발달로 정교한 가짜뉴스가 24시간 자동으로 대량생산되어 쏟아지고 있다. 대만은 이에 맞서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OSINT 기술을 전 국민의 필수 교양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팩트체크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포털과 메신저 등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IT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방문 인터뷰

뤄스훙(Shih-Hung Lo, 국립중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사장과 웨이팅첸(Wei-Ting Chen) 수석 팩트체커를 만나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운영과 현황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행자] : 최근 한국 팩트체크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면 대만은 팩트체크 생태계가 계속 확대되는 것 같다.

[TFC 이사장] : 대만은 운이 좋은 편이다. 대만 정치인들은 팩트체크 단체에 비교적 우호적이며,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다. 정부가 민간기관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친화적이다. 대만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전통’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행자] :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나?

[TFC 이사장] : 대만에서 정부 산하 팩트체크 기관을 만들거나,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 기관이 엄정한 팩트 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의심한다. 그래서 아직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은 없다. 편당만 안정적이라면 투명하고 독립적인 NGO가 팩트체크를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진행자] : 시민단체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조작 뉴스를 검증할 때 어려움은 없나?

[TFC 이사장] : 대만의 팩트체크 단체는 대부분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정보 출처와 무관하게 가짜 뉴스면 그대로 밝힌다. 당연히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여당인 민진당 지지층에 유리한 가짜 뉴스를 거짓으로 판정하면 민진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반대로 중국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하여 바로잡으면 이번에는 반중 성향의 네티즌들이 “왜 굳이 나서서 중국을 돕느냐”며 공격한다. 양 진영 지지자 모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역으로 그만큼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 쪽에서 공격받더라도 계속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진행자] : 스스로 정치적 중립이라 강조하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TFC 이사장] :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 생각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은 철저히 중립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오직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진행자] : 페이스북(메타)에서 펀딩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해외에서는 펀딩 중단 발표가 있었는데, 대만 상황은 어떤가?

[TFC 이사장] :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 내 지원은 즉각 중단된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 외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팩트체크 협력은 매년 갱신하며 유지하고 있다. 펀딩이 계속되길 희망하지만, 우리 역시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개인 후원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진행자] : 현재 팩트체커가 14명이라고 들었는데, 대부분 기자 출신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TFC 편집자] : 대부분 취재 경험이 있는 기자이거나 전직 TV 방송국 PD 출신이다. 학교 졸업 후 이 분야로 바로 들어와 팩트체크를 시작한 직원이 2명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3명 정도 있다.

[진행자] : 언론사 편집국의 뉴스룸 시스템처럼 보인다.

[TFC 편집자] : 일반 뉴스룸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의 모든 팩트체크 보고서는 발행 전 팩트체커 전원이 읽고 검토해야 한다. 사람마다 관점이나 배경이 달라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 정보가 ‘틀렸다’고 만장일치로 인정해야만 보고서를 낼 수 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증거가 완벽히 충족될 때까지 보도를 보류한다. 인터넷에 올렸을 때 독자들도 똑같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자] : 증거를 모을 때는 언론사 기자들처럼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나?

[TFC 편집자] : 그렇다. 일반 기자와 비슷하게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다. 정부 공개 데이터를 먼저 찾고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자를 인터뷰한다. 덧붙여 영상이나 사진 루머일 경우 이미지 역검색이나 AI 탐지 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위를 확인한다.

[진행자] : 팩트체크해야 할 기사가 매우 많을 텐데, 아이템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TFC 편집자] :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약 10만 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챗봇 계정이다.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제보하는데, 단기간에 동일 내용이 다수 접수되면 중요 사안으로 판단해 최우선으로 확인한다. 둘째는 국가와 사회 공익에 명백히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우선 처리한다. 셋째는 대만인들이 즐겨 쓰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민생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 토론량이 많은 의제를 선별한다.

[진행자] : TFC에서 운영하는 리터러시 교육기관도 눈에 띈다.

[TFC 이사장] : ‘대만 사실확인학원’이라는 교육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각종 교육 영상과 PPT를 제공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기자와 직원들을 교육한 내용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 팩트체크가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허위정보가 퍼진 후다. 그래서 일반 시민 스스로 가짜임을 인지해 유포를 막는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젠 아시아 챌린지’는 구글의 지원으로 시작된 아시아 청년 대상 팩트체크 대회다. 처음엔 대만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몇 개 조직이 연합해 자국 내 대회를 거친 뒤 아시아 국제 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작년엔 몽골이 가입했고, 인도, 태국, 일본 등 매년 참가국이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진행자] : 한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최근에는 팩트체크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어떤가?

[TFC 이사장] : 대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역사가 길다. 내가 이사장을 맡았던 미디어관찰교육재단만 해도 25년 전부터 초·중·고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보급을 시작했다. 현재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의 활동도 원래 해당 재단의 작은 프로젝트였으나, 이후 구글과 메타의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국민들은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피해를 막고자 스스로 리터러시 자원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팩트체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진행자] : 대만 국민들의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TFC 이사장] : 연령층과 학력, 환경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대만은 초·중·고교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평소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서 배운다. 최근 노년층들이 사기 피해를 우려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대학’ 등에서 관련 수업을 찾아 들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행자] :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TFC 이사장] : 지금까지 기관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다. 구글과 메타의 펀딩이 중단되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자금 조달을 고민한다. 우리는 ‘팩트체크 리포트’ 판정 결과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띄운다. 정부 지원은 고려하지 않으며,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금은 필요하지만, 통제받을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만에도 한국처럼 언론지원기금이 생긴다면, 정부 자금과 사회의 지원을 합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대만 내 기업과 시민 대상 모금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메타에게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진 1]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 의장 뤼스홍(좌), 수석 팩트체커 웨이팅첸(우)



코팩츠 방문 인터뷰

시민 해커이자, 대만의 클라우드소싱 팩트체크 플랫폼 코팩츠를 이끄는 빌리언 리(Billion Lee) 공동 창립자를 만나 시민 참여와 오픈소스 기술을 결합한 코팩츠만의 독특한 사실검증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진행자] : 코팩츠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창립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가?

[코팩츠] : 난 정치학을 전공했다. 정치학, 공공 정책, 행정학,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다. 정치학 전공 후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다. 코팩츠 자체는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IT 시스템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시민 해커(civic hacker)’라고 부른다.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는 엔지니어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시민 해커’로 불리고 싶다.

[진행자] : 미디어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코팩츠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나?

[코팩츠] : 인권문제에서 출발했다. 2016년 무렵, 당시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등 성평등에 관한 꽤 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중국으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매우 우려스러웠다.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매체 자료들이 번체자로 번역되어 대만에 유포되었다. 그것이 2016년, 2018년 대만 선거, 특히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2018년 지방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은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성평등 문제도 그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대만이 동성결혼이 합법인 나라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성평등과 차별 등에 관해 대만을 타깃으로 한 엄청난 양의 허위정보가 퍼졌다. 이때부터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진행자] : 조직 내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풀타임 근무자인가?

[코팩츠] :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핵심 멤버’라고 부른다. 코팩츠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하지만 핵심 멤버 외에도 허위정보를 검증하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팩트체크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큰 그룹이 커뮤니티를 지탱

한다. 4,000명이 넘는다.

[진행자] : 코팩츠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위키피디아(Wikipedia)나 오픈 데이터베이스 개념인가?

[코팩츠] : 우리는 자체 서버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개방한다. 이것이 우리가 대중과 협력하는 핵심적인 방식이다. 위키피디아에 로그인해서 정보를 업로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

[진행자] : 위키피디아가 받는 비판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고, 팩트체크 관련 전문가도 아니지 않나?

[코팩츠] : 실제로 그들도 약간의 훈련을 받는다. 타이완 팩트체크 센터를 보면 조직 내 대부분의 직원이 전통적인 저널리스트다. 언론사 출신들이 많다. 하지만 코팩츠는 기술을 통해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시민 주도 기술 조직이다. 팩트체크 전문인력보다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한다.

[진행자] :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인가?

[코팩츠] :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4,000명 정도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유롭게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운영자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다. 팩트체크 교육을 위해 웹사이트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한다. 20~30여 명이 참가하는 3시간짜리 오프라인 워크숍도 진행한다.

[진행자] : 모든 과정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듯 보인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코팩츠] : 물질적 보상은 전혀 없다.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스스로의 보상이다. 허위조작 뉴스와 관련해서 대만은 생존이라는 실존적 이슈를 안고 있다. 정보전에 있어 대만은 최전선에 서 있다. 중국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앞에서 있다는 말이다. 덕분에 많은 대만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진행자] : 팩트체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없었나?

[코팩츠] : 기술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인간은 누구나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팩트체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는 시민 모두를 팩트체커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한다.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투명성

과 열린 공간 덕분에 다른 팩트체크 단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검증 결과를 제공하면 된다.

[진행자] : 기술에 기반한 조직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코팩츠] :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이 팩트체크를 가장 잘할 것이다. AI도 활용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첫 번째 검증은 인간이 하게 한 다음, 나머지 비슷한 일들은 기계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이 전체 생태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진행자] : (정부)자금으로부터 100%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코팩츠] : 우리는 100% 독립적이다. 특히 대만 정부로부터 그렇다.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거리를 유지한다.

[진행자] : 그렇다면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서버 등 운영비용이 필요할 텐데?

[코팩츠] : 존슨 량(Johnson Liang, 공동 창립자)이 몇백 달러 수준의 서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때로는 NGO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아주 작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진행자] : 코팩츠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발행하나?

[코팩츠] : 우리는 ‘가짜뉴스’의 검증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TFC 등과 같이 보고서나 기사, 논평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만의 팩트체크 생태계 안에서 보고서 발행은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행자] : 한국 팩트체커들은 정치 관련 뉴스에 좀 더 신경쓰는 경향이 있다. 코팩츠는 어떤가?

[코팩츠] : 대만 사회도 정치적 양극화를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팩트체크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면 팩트체커가 타임라인이나 증거를 들이밀며 확인해 줘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마치 수학이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듯이, 팩트체크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팩트체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실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행자] : 검증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르는가.

[코팩츠] : 정보가 아주 바이럴(viral)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널리 확산되는지를 본다. 그래픽을 통해 ‘아, 이 정보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확산이 많이 됐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는다.

[진행자] :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인상적이다.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그걸 Open API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들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코팩츠] :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나한테 연락할 필요조차 없다.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실제로 챗봇을 통해 팩트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과 단체들도 자유롭게 연결해서 쓴다. 학자들도 연구 목적으로 많이 연결해서 사용한다.

[사진 2] 코팩츠 공동설립자 빌리언 리



참고자료

Doublethink Lab. (2024). 2024 Taiwan elections foreign influence observation: Preliminary statement. Medium. <https://medium.com/doublethinklab/2024-taiwan-elections-foreign-influence-observation-preliminary-statement-caeecb5b88e>.

LY Corporation. (2025, March 12). "How Accurate Is This Information?" — How LINE Fact Checker Prevents the Spread of Fake News in Taiwan. https://www.lycorp.co.jp/en/story/20250312/line_fact_checker.html.

Su, C., & Li, W.-P. (2023, March 31). Three Musketeers against Mis/disinformation: Assessing Citizen-led Fact-checking Practices in Taiwan. Taiwan Insight. <https://taiwaninsight.org/2023/03/31/three-musketeers-against-mis-disinformation-assessing-citizen-led-fact-checking-practices-in-taiwan/>.

Taiwan FactCheck Center. (2023, May 19). 大事紀 - 假訊息調查發表會 [Milestones - Presentation of the Disinformation Survey]. <https://tfc-taiwan.org.tw/fact-checking-milestones/>.

Taiwan FactCheck Center. (2026, May 5). 【2025大調查】9成民眾感受假訊息嚴重影響 詐騙取代政治成最大來源 [2025 Survey: 90% of the public feel the serious impact of disinformation; scams replace politics as the biggest source]. <https://tfc-taiwan.org.tw/taiwans-2025-misinformation-survey-from-political-narratives-to-scam-driven-content/>.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2026, April 2). State of the Fact-Checkers: Audiences grow as finances worsen. Poynter Institute. <https://www.poynter.org/ifcn/2026/state-fact-checkers-2025/>.